

경제적모순들의체계혹은빈곤의철학 제 1 권

피에르조제프프루동

피에르조제프프루동
경제적모순들의체계혹은빈곤의철학제 1 권
1846 년

차례

서론	4
제 1 장경제학에관해	26
I . 여러사회의경제에서사실과법의대립	26
II . 이론들과비판들의미흡성	31
제 2 장가치에관해	43
I . 효용가치와교환가치의대립	43

이처럼가치에서는교환될수없는것은유용하지않고, 유용하지않다면교환가능
한것은없다. 사용가치와교환가치는불가분이다. 그러나산업의진보에의해수
요가달라지고무한히증식되며, 제조는결과적으로물건의자연적효용을높이고
결국일체의유용한가치를교환가치로전환하는경향이있는반면, 다른한편으로
생산은그수단들의위력을끊임없이증대하고언제나그비용을낮추어물건의매매
가치를그원초적효용으로되돌리는경향이있다. 그래서사용가치와교환가치는
끊임없는투쟁중에있다.

이투쟁의효과들은알려져있다. 무역전쟁, 판로전쟁, 충색, 침체, 금수禁輸,
경쟁의학살극, 독점, 임금의삭감, 최대의법칙, 운명의극심한불평등, 빈곤이가
치의이율배반에서유래한다. 여기서그에대한증명을하는것을면해달라. 이는다
음장들에서자연스럽게다시나올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이이율배반의끝을아주웁게요구하면서도그원천을오인하
고거기서공적권위의명령에의해서복구할수있었던상식의착각만을보는잘못을
범했다. 이로부터한심한감상感傷의폭발이온다. 이는사회주의를실증적정
신에게아주재미없는것으로만들었고극히황당한환상을전파해매일같이수많은
바보들을만들어낸다. 내가사회주의를비난하는점은그것이이유도없이생겨났
다는것이아니라아주오랫동안그리고아주완고하게어리석은채로남아있다는것
이다.

2. 그러나경제학자들은선험적으로, 그리고그것도모순적자료, 혹은더제대
로말해서이율배반적자료에힘입어가치로부터일체의개혁관념과개혁희망을배
척하는, 그에못지않게심각한잘못을했다. 사회가그가장높은적대의시기에도달
했다는바로그것에의해화해와조화가임박했다는것을결코이해하려고하지도않
으면서말이다. 그런데이는그전문가들이현대형이상학이밝혀준내용들을더많
이고려했더라면정치경제학의주의깊은고찰이이들에게손가락으로만지게해주
었을것이다. 실제로인간이성이아는더실증적인모든것에의해이율배반이발현
하는곳에는항들의해소전망이, 따라서변혁의알림이있다는것이증명된다. 그런
데장바티스트세가해설한바와같은가치관념은정확히이경우에들어온다. 그러
나경제학자들은대부분그리고의식할수없는숙명에의해철학적움직임에낮선채
로있어가치의본질적으로모순적인, 혹은그들이말하듯가변적인특성이동시에
그구성성의, 말하자면그상당히조화롭고확정가능한본성의공인된표징이라고
생각하기를삼갔다. 다양한경제학파에어떠한불명예가돌아가든지그학파들이
사회주의에했던반대는오직그들자신의원리들에대한이잘못된개념에서유래한
다는것이확실하다. 천가지것들중하나

서론

이새논문들의대상이되는주제에들어가기전에하나의가설, 의문의여지없이 이상해보이겠지만그것없이앞으로나아가고이해를받는것이내게는불가능한 하나의가설을고찰할필요가있다. 나는신의가설에대해말하고자한다.

신을가정하는것은그를부정하는것이라고말할것이다. 당신은어째서그를 긍정하지않는가?

신성에대한믿음이의심스러운견해가되었다면이것이내잘못인가? 지고의 존재에대한단순한의심이이미허약한정신의표상으로주목된다면, 그리고그것이 모든철학적유토피아중에세상이더이상감내하지않는유일한유토피아라면? 위선과어리석음이어디서나이거룩한꼬리표아래숨겨져있다면이것이내잘못인가?

어떤박사가우주안에서미지의힘이항성들과원자들을이끌며모든기계장치를 움직인다고상상한다면, 그에게이가정은완전히공연한것으로서자연스러운 것밖에없다. 그것은받아들여지고, 권장된다. 인력引力을보라. 결코입증하지는 못할, 그러면서도발명자에게영광이되는가설이다. 그러나인간사의흐름을 설명하기위해내가상상할수있는모든조심성을지닌채신의개입을가정한다면나는 확실히과학계에심각성을촉발할것이고가혹한비평가들의귀에거슬릴것이다. 그토록우리의진심은섭리를놀라울만큼불신해왔고, 그토록온갖복장을걸친돌팔이들은이교리혹은이허구를매개로수작을떨다. 나는우리시대의유신론자들을보았고, 신성모독은내입술위에번져왔다. 나는인민, 브리덴 [1] 이신의가장 좋은벗이라고부른이인민의신앙을고찰했으며, 나도모르게나오는부정에몸서리쳤다. 상반되는감정들에괴로워진나는이성에호소했다. 그리고수많은교조적 대립중에서오늘날나에게그가설을주문하는것은이이성이다. 신에게적용되는 선형적교조주의는불모인채로있었다. 그가설이우리를또어디로데려갈지누가 알겠는가?

그러므로나는내가슴의침묵속에서일체의인간적인고려를멀리하고사회혁명들의신비를공부하면서신, 위대한미지의것이나에게어떻게하나의가설, 말하자면필요한변증법적수단이되었는지를말하고자한다.

I

만일내가여러모습을떠며달라져가는신의관념이라면, 나는이관념이무엇보단먼저사회적관념이라고본다. 그말은그것이개인적개념형성이라기보다는월

안티노미 antinomie, 문자적으로는반법反法인이것은원리상의대립혹은 관계에서의적대를말한다. 이는모순혹은자가당착 antilogie 이대화에서의대립이나상반성을가리키는것과같다. 나는이런스콜라적세부사항, 아직도대부분의경제학자에게는별로익숙하지않은이것에들어가는데대해용서를구한다. 이 율배반은하나의긍정적이고하나의부정적인두얼굴을한법칙의개념이다. 예를 들어인력引力이라고불리는법칙이그런것이다. 이는태양의둘레를행성들이돌게하며, 기하학자들은이를구심력과원심력으로분해했다. 또물질의무한가분성 문제도그러한데, 칸트는이것이동등하게그럴듯하고반증불가능한논리에의해 부정되었다가또긍정이될수있다는것을증명했다.

이율배반은사실을표현할뿐이며, 정신에거역할수없는권위로과해진다. 고유한의미에서모순은터무니없는것이다. 이율배반 contra-lex 과모순 contradictio 간의이구분은, 어떤의미에서관념과사실의일정한질서에서모순의논리가수학에서와같은가치를더이상가지지않는다고말할수있었는지를보여준다.

수학에서는한명제가거짓으로입증되면, 역의명제가참이고그반대도성립하는것이규칙이다. 이는수학적증명의위대한수단이기도하다. 사회경제학에서이 는더이상그와같지않다. 이처럼예를들어재산권이그결과들에의해거짓된것으로증명되었다고해서그상반된공식인공동소유 communauté 가참이되는것은 아니며, 그것은재산권과동시에그리고같은명목으로부정가능하다는것을알게 될것이다. 아주우스운강조를하면서사람들이말했듯이모든진리, 모든관념은모순에서, 즉동일시간그리고동일관점에서긍정되기도하고부정되기도하는어떤 것에서나온다는것, 모순을오류의두드러진표정으로삼는낡은논리를아주멀리 기각할필요가있다는말인가? 이잠담은신앙도선의도없이자신들의무례한무의 성을유지하기위해회의주의를연구화하려고일하는퀴변론자들에게결맞다. 이 율배반은오인되자마자곧틀림없는모순을가져오므로, 사람들이특히각사물을 그효과에따라지칭하기를좋아하는프랑스어에서는이를서로혼동했다. 그러나 모순도, 분석이모든단순관념의근저에서발견하는이율배반도참의원리는아니 다. 모순은언제나무효와동의어이다. 때로는같은이름으로불리는이율배반은실제로진리의선구자이다. 말하자면진리에재료를공급한다. 그러나이율배반이진 리는아니며, 그자체로본다면무질서의동인動因이고, 거짓말과악의고유한형태이다.

이율배반은두향으로구성되는데, 그두향은서로에게필요하지만언제나상반 되고, 서로를파괴하는경향을떨다. 이두향중앞의것은정명제 thèse, 입장이라는이름을얻었고, 뒤의것은반명제 anti-thèse, 반대입장이라는이름을얻었다 는것을감히덧붙일생각이거의없지만이발걸음을내디딜필요가있다. 이때커니 즘은지금에아주잘알려져서초등학교과정에서도곧모습을드러내게되리라희망 한다. 우리는곧이두영畧의조합에서어떻게하나가, 혹은이율배반을사라지게하 는관념이솟아나는지를보게될것이다.

은자유를파괴할것이다. 이는평등자체의부정이다. 당신이생산자들을단일한작업장에모은다면, 나는당신이비밀을파악하리라생각할까? 그것으로는아직충분하지않다. 당신은또한소비자들도하나의공동살림에모아볼필요가있다. 하지만그때당신은그문제를방기한다. 가치관념을폐기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다. 이는노동을폐기하는것과마찬가지로불가능한일이다. 그관념을확정하는것이중요하다. 개인적자유를죽이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그것을사회화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런데유용한가치와교환가치간의대립을일으키는것은사람의자유지이다. 자유의지가존속하는한이대립을어떻게해결할것인가? 그리고사람을희생시키지않는다면, 자유를어떻게희생시킬것인가?...

그러므로자유로운구매자의자격으로나는내필요의심판자이고, 물건의적질성에대한심판자이고, 내가매기고싶은가격의심판자라는것, 그리고다른편으로자유로운생산자의자격으로당신은실행수단의주인이고, 결과적으로당신은당신의비용을낮출능력을가진다는것, 그것에의해서만자의성이불가피하게가치안에도입되며, 가치가유용성과의견사이에서진자운동을한다.

그러나이진자운동은경제학자들에의해완벽하게특기된것으로서모순의효과라고는아무것도아니다. 이는큰규모로유통된다면극히예기치못한현상을낳는다. 3년간의풍작은러시아의어떤지역에서는공적인재난이다. 우리의포도원에서3년의풍작이어떤포도원주인에게는재난인것과마찬가지이다. 나는잘모르지만, 경제학자들은이시련을판로의부족 탓으로돌린다. 역시판로는그들사이에서는거대한문제이다. 유감스럽게도판로의이론은멜서스에게들이대고자했던해외주의이론과같다. 이는논점선취 pétition de principe 의오류이다. 판로가가장잘마련된상태도가장고립된나라들처럼과잉생산에종속된다. 파리와런던의증권시장보다가격인하와가격인상이더잘알려지는곳이어디인가?

가치의진자운동과그로부터흘러나오는불규칙적효과들로부터사회주의자들과경제학자들은각자의입장에서상반된결과를, 그러나마찬가지로그릇된결과를도출했다. 전자는정치경제학을편취하고이를사회과학에서제외하려고말했다. 후자는두항사이의일체의화해가능성을기각하고여러가치의공존불가능성, 따라서운명의불평등을상업의절대법칙으로언명하기위해말했다.

나는양측에서오류는대등하다고말한다.

1. 가치의모순적관념은유용한가치와교환가치의불가피한구분해의해아주잘조명된것으로, 이는정신의잘못된인식에서나오는것도아니고, 불량한용어사용에서나오는것도아니고, 실무의어떠한착각에서나오는것도아니다. 그것은사물의본성에내재하며, 사고의일반형태, 즉범주로서이성에과해진다. 그런데가치개념이정치경제학의출발점이므로, 그과학의모든요소들은그자체로모순적이고서로대립된다. 나는미리과학이라는말을사용한다. 그래서각각의문제에관해경제학자는똑같이반증가능한긍정과부정사이에끊임없이처하게된다. 결국현대철학에서성별淸別된말을사용하자면, 이율배반 l'antinomie 이정치경제학의본질적특성, 즉그것의사형선고이자그것의정당화론이다.

썬더집단적사유의신앙행위라는것이다. 그런데어떻게, 그리고어떤계기로이신앙행위가생겨나는가? 이를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도덕적·지적관점에서사회혹은집단적인간은무엇보다도행위적자생성, 다른말로본능에의해개인과구별된다. 개인은그가충분히알고가입을거절하거나동의할수있는주인이되는동기에만복종하거나복종한다고상상하는반면, 한마디로그는스스로자유로우며, 그가자신을이성적이고교육을잘받았다고생각할수록그만큼더자유롭다고판단하는반면, 사회는첫눈에자의성과기획의기척을아무것도보이지않는, 그러나조금씩사회바깥에존재하는상급협의회의지도를받는것으로보이며사회를미지의끝을향해불가항력으로밀어붙이는힘들에종속된다. 군주정과공화정의수립, 카스트구분, 사법제도등은그원칙을가리키거나그이유를제시하기보다그효과를특기하는것이훨씬더쉬운이사회적자생성의그만한발현이다. 보쉬에, 비코, 헤르더, 헤겔에이어역사철학에투신한자들의일체의노력자체가지그까지사람의일체의움직임을주재하는섭리적운명의존재를확증하는것이였다. 또나는이와관련해서사회는움직이기전에결코자신의수호신을일깨우지않는일이없다는것을관찰한다. 마치이미그의자생성이결의한것을위로부터명령받기를원하듯이. 운세, 신탁, 희생제사, 대중적갈채, 공적기도는나중에사회의이런의도성의가장통상적인형태이다.

이신비적이고아주직관적이며, 또한말하자면초사회적인능력은사람들에게서는조금밖에나혹은전혀감지되지않지만인류위에서는영감을주는신령처럼떠있는것으로서심리학일체의원초적사실이다.

그런데한꺼번에개체취향과집단적충동에복속한다는점에서는사람과같은다른동물종들과달리, 사람은자신을움직이는본능혹은운명을인식하고자자기 자신의생각에기별奇別하는특권을지닌다. 우리는뒤에가서, 사람이또한그것을깨닫고심지어그것의명령에영향을미칠능력도소유함을보게될것이다. 그리고(거룩한숨에대한) 열광으로황홀해지고관통된사람의첫번째움직임은자신의의존함을느끼는, 그가신, 즉생명, 존재, 영, 아니더간단하게‘나’라고이름붙이는보이지않는섭리를찬미하는것이다. 왜냐하면고대언어에서이말들은동의어이고, 동음어이기때문이다.

‘나는나이며, 나는너와협상한다’고신이아브라함에게말한다. 또모세에게는‘나는(존재하는) 나이다’라고말한다. ‘너는이스라엘자녀들에게존재가나를보낸다’고말하라’고한다. 존재와‘나’라는이두말은사람들이말했던가장종교적인원어에서는같은특성을지닌다.[2] 게다가모세라는기관에의해입법자가되는여호와 Je-hovah 가자신의영원함을증언하고자신의본질로써맹세할때, 그는맹세의양식으로‘나’라고말한다. 혹은힘을배가하여, ‘나, 존재’라고말한다. 역시히브리인들의신은모든신들중가장인간적이고가장자발적이며, 인류의직관을그보다더잘표현하는것은없다.

그러므로신은인간에게하나의나로서, 순수하고영원한본질로서나타난다. 군주가신앞에서나서듯이인간앞에서나서며때로는시인, 입법자, 점쟁이의입술

로무사 musa, 노모스 nomos, 누멘 numen 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때로는 민중의 갈채로써 스스로를 표현한다. 민민의 소리는 신의 소리이다 (vox populi vox Dei). 이는 어떻게 참된 신탁과 거짓된 신탁이 있는지를 설명해줄 수 있기도 하다. 태어날 때부터 격리된 개인들은 왜 스스로 신의 관념에 이르지 못하는 반면, 그 관념이 집단적 영예의 해제시되자마자 이를 냉큼 포착하는가. 끝으로 중국인들과 같은 정태적인 종족은 어떻게 해서 그 관념을 결국 잃어버리는가. [3] 우선, 신탁들에 대해 말한다면, 신탁의 일체의 확실성은 신탁에 영감을 불어넣는 보편적 인식에서 나온다는 것이 명확하고, 다음으로 신관념에 대해 말하자면, 어쩌서 압류와 현상이 마찬가지로 그에 치명적인 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편으로 소통의 결여는 영을 동물적이기 싫어 흡수된 채로 놓는다. 다른 한편으로 운동의 부재는 사회 생활을 조급씩 일상사와 기계 체제로 변화시켜 결국 자발성과 섭리의 관념을 제거한다. 이상한 일이다! 진보에 의해 망하는 종교는 또한 부동성에 의해서도 망한다.

군더더기가 되겠지만, 신성의 첫 번째 계시인 보편적 이성 의 모호한, 말하자면 객체화된 인식과 관련해서 우리는 신의 실재성 자체 혹은 비실재성에 관해 절대 아무런 선입견도 가지지 않는다는 데 주목하자. 실제로 신이 집단적 본능 혹은 보편적 이성 말고 다른 것이 아님을 인정하자. 그러면 또한 이 보편적 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어서 보겠지만, 보편적 이성 은 결코 개인적 이성 안에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법칙들에 대한 지식 혹은 집단적 관념들의 이론은 순수 이성의 근본 개념들로부터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경험적이며, 결코 연역이나 귀납 혹은 종합을 거쳐 선험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법칙들을 그 자신의 작품으로서 연결시키는 보편적 이성, 별개의 영역에서 순수 이성과는 구분되는 실재로서 존재하고 사유하고 일하는 보편적 이성 은, 세계 체제가 수학적 법칙들에 따라 창조됨에도 불구하고 수학과는 구분되는, 그리고 그로부터 수학만의 존재를 도출할 수는 없을 실재이듯이, 현대적 언어로 하면 바로 고대인들이 신이라고 불렀던 것이라는 결과가 된다. 그 말이 바뀐 것이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신적 관념의 진화를 추적해 보자.

지고의 존재가 일단 최초의 신비적 판단에 의해 설정된 후 인간은 즉각 또 다른 신비주의인유비 analogie 로써 이 주제를 일반화한다. 신은 말하자면 아직도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곧 그는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사회적 자라느끼면서 창조자에게 경배한 것처럼, 그는 동물, 식물, 연못, 기상 氣象 그리고 우주 전체에서 총 동과의 도를 발견하면서 각 물체에 그리고 전체에 그것을 주재하는 혼, 영 또는 신령이 있다고 본다. 사회라고 하는 자연의 가장 높은 정점을 신으로 만드는 이 귀납 추론을 가장 낮은 존재, 무생물이며 무기체인 물체들에까지 추구해 가는 것이다. 인간은 그러므로 창조의 상위극으로 간주되는 집단적 자아로부터 마지막의 물질 원자에까지 신의 관념, 즉 인격적, 지성적 관념을 확장하는데, 이는 창세기가 신자신이 하늘을 펼쳤다고, 즉 만물을 담는 용기인 공간과 시간을 창조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 해주는 것과 같다.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그 사용이 필요하고 수량이 무한정한 물건들은 무료여야 하고, 그 쓸모가 없고 희소성이 극히 큰 물건들은 측량할 수 없는 가격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주 당황스럽게도 실무는 결코 이 극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어떠한 인적 생산물도 결코 무한의 크기에도 달할 수 없다. 또한 편으로 가장 희소한 물건들은 어느 정도는 쓸모있을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어떠한 가치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유용한 가치와 교환 가능한 가치는 그러므로 비록 그 본성 상 끊임없이 서로를 배제하는 경향을 띠에도 불구하고 서로 속명적으로 연관된 상태로 있다.

나는 이 주제를 해명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을 입씨름의 반박으로 독자를 피곤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가치 관념에 내재하는 모순에 관해 지목 가능한 원인도, 가능한 설명도 없다. 내가 말하는 사실은 사람들이 원시적이라고 칭하는 사실들 중 하나, 즉 다른 사실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단순체라고 부르는 것처럼 불가해한 사실이다. 그러한 것으로는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이 있다. 정신과 물질은 별개로 본다면 각각이 정신의 특수한 관점을 가리키지만 어떠한 실재에도 부응하지 않는 두 항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아주 다양한 산물들에 대한 필요가 이를 자신의 노동으로 조달할 의무와 함께 주어진 때 유용한 가치의 교환 가능한 가치에 대한 대립이 필연적으로 나오며, 이 대립으로부터 정치 경제학의 문턱 자체에 관한 모순이 생겨난다. 어떠한 지성도, 어떠한 신적, 인간적 의지도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기괴한 설명을 구하는 대신, 그 모순의 필연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하자.

창조된 가치들이 얼마나 풍부하든, 그 가치들이 서로 교환되는 비율이 어떠한든 우리가 우리 생산물을 교환하려면 당신이 수요자인 경우 내 생산물이 당신에게 맞을 필요가 있고, 당신이 공급자인 경우 내가 당신의 생산물을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도 타인에게 자기 자신의 상품을 강요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유용성의, 혹은 같은 말이지만 필요의 유일한 심판자는 구매자이다. 그러므로 앞의 경우에서 당신이 적합성의 심판이다. 뒤의 경우에서는 나다. 번갈아가며 우리는 자유를 없애 보라. 그러면 교환은 더 이상 산업적 연대성의 실행이 아니다. 이는 강탈이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공산주의는 결코 이 난점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와 함께 생산은 필연적으로 불확정적이다. 수량에서나 품질에서나 그러하다. 그래서 경제적 진보의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에 든다는 관점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평가는 영구히 자의적으로 남으며 언제나 상품의 가격은 요동칠 것이다. 잠시 모든 생산자들이 고정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자. 더 저렴하게 생산하거나 더 잘 생산해서 남들은 아무것도 벌지 못할 동안 많이 벌 사람 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균형은 깨진다. 상업의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을 꼭 필요한 만큼으로 한정하기를 원하는가? 이는 자유를 유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게 선택할 능력을 빼앗고 최대를 지불하도록 저주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경쟁, 염가 廉價의 유일한 보장책인 경쟁을 파괴하고, 밀수를 유발한다. 이처럼 상업적자의 성을 막기 위해 당신은 행정적자의 성에 뛰어 들 것이다. 평등을 창조하기 위해 당신

스물다섯마보다가치가덜나갈것이다. 그래서가치는쓸모의생산이증가하면서 줄어든고, 생산자는여전히풍요해지면서도빈곤에이르게될수있다. 그리고이는 치료법이없어보인다. 안녕의유일한수단은공산품이모두공기와햇빛처럼무한한양이되는것일것이기때문이다. 이는터무니없는것이다. ‘내이성의신이여! 터무니없는이야기를하는것은경제학자들이아닙니다’하고장자크 [11] 는혼잣말했을것이다. 자신의정의定義에충실하지못한것은정치경제학자체다. 거짓으로말한것은사악함그자체다 (Mentita est iniquitas sibi).

앞의예들에서는유용한가치가교환가능한가치를초과한다. 다른경우들에서는더작다. 그렇다면같은현상이벌어지지만, 방향이다르다. 저울은생산자에게 유리하다. 그리고당하는것은소비자다. 이는특히홍작때일어나는일이다. 이때생필품의상승은언제나인위적인면이있다. 그기술이라고는별로쓸모도없는물건에, 없어도별지장없는물건에과장된의견상의가치를부여하는직업들도있다. 그런것은일반적으로사치품공예들이다. 사람은심미적열정에의해그소유가자신의허영, 선전적인사치취향, 아름다움에대한극히고귀하고존경받을만한사랑을고도로충족시키는쓸데없는것들에욕심을가진다. 이런종류의물건들의제공자들이투기를하는것은이에관해서다. 환상과우아함을강요하는것은유통에세금을부과하는것못지않게역겹고터무니없는일이다. 하지만이조세는몇몇인기있는기업가들에의해징수되며, 일반의환호가이를보호해주고, 그공로라고는아주흔히취향을왜곡하고, 번덕을생겨나게하는것뿐이다. 그때부터는아무도불평하지않는다. 그리고모든여론의정치는독점자들에게돌아가는데, 이들은재능덕분에천과땅의가격을몇상십배올리게된자들이다. ...

유용한가치와교환가능한가치에서이놀라운대조를표시한것은별것이아니다. 이대조에서경제학자들은아주단순한것밖에보지못하는데익숙해져있다. 이단순성이라고하는것이심오한신비를감추고있다는것을보여줄필요가있다. 이를간파하는것이우리의의무이다.

그러므로나는모든진지한경제학자들에게그문제를번역하거나반복하는것 말고다른방식으로생산이증가함에따라어떤원인에서가치가감소하는지를, 그리고역으로산물이감소함에따라바로이가치를크게만드는것이무엇인지를말해달라고주문한다. 기술적용어로말하면, 유용한가치와교환가능한가치는서로에게필요한가치들로서서로반비례한다. 그러므로나는왜유용성이아닌희소성이고가高價의동의어인지를묻는다. 왜냐하면, 상품들의가격상승과가격하락은그생산에서출된노동량과독립적이기때문이다. 이점을주목하자. 그상품들에드는비용의많고적음은물가공시표상의변동을설명하는데조금도도움이되지못한다. 가치는자유의여신처럼번덕이심하다. 유용성도노동도고려하지않는다. 그러기는커녕사물의통상적흐름에서특정한예외적교란을제외하면, 가장유용한물건들이언제나더낮은가격에제공되어야할것같다. 다시말해, 가장편안하게일하는사람들이가장좋은보수를받고, 자신들의수고에피와땀을 쏟는이들은가장나쁜보수를받는것이정당한것같다. 그래서그원리를마지막결과까지따라가면,

이처럼조물주인신없이는우주와인간은존재하지않을것이다. 이는사회적인앙고백이다. 그러나또한인간없이신은생각되지못할것이다. — 이간극을건너가자 — 신은아무것도아닐것이다. 인류가조물주를필요로한다면, 신, 신들은그에못지않게계시자를필요로한다. 신통보神統譜, 천국과지옥과그주민들의역사, 인간사고의이꿈들은어떤철학자들이역으로신의꿈이라고칭한우주의상대물이다. 그리고사회의작품인이신학적창조물안에얼마나웅장함이있는가! 데미우르고스의창조물은지워졌다. 우리가전능자라고칭한자는패배했다. 그리고수세기동안유한한인간들의마법에홀린상상은올림포스의기적을주시함으로써자연의광경으로부터돌려졌다.

이환상적지역에서내려오자. 가엾은이성이문을두드린다. 그의무서운질문에대답할필요가있다.

신이란무엇인가? 하고이성이묻는다. 그는어디에있는가? 그는몇명인가? 그리고그는무엇을원하는가? 그는무엇을할수있는가? 그는무엇을약속하는가? 그리고보라, 분석의햇불에하늘과땅과지옥의모든신들이내가알지못하던무체의, 불투명한, 부동의, 이해할수없는, 정의할수없는, 한마디로존재의모든특성의부정인것으로환원된다. 사실상사람이각물체에특수한영이나신령을부여하든지, 우주를유일한권능에의해통치되는것으로의식하든지그는언제나무조건적인, 즉불가능한존재자를상정하고그로부터그가달리의식할수없다고판단하는현상들에대하여떠한설명이든지이를도출하기만한다. 신과이성의신비다! 자신의우상숭배대상물을점점더합리적으로만들기위해신자는그로부터그를실재하는것으로만들어줄모든것을계속해서버려낸다. 그리고논리와천재성의기적들이있을후에존재의특성들은무無의특성들과같아진다. 이런진화는불가피하고속명적이다. 무신론이일체의변신론근저에있다.

이런진보과정을이해시키도록해보자.

만물의창조자인신의의식에의해스스로창조되자마자, 다시말해우리가신을사회적자아의관념에서우주적자아의관념으로높이자마자곧바로우리의성찰은완성을핑계로그신을파괴하는데착수한다. 신관념을완성한다! 신학적교리를청산한다! 이는인류의두번째환상이다.

분석정신, 지칠줄모르고끊임없이질문하고논박하는사탄은조만간에종교적교조주의에대한증명을시도해야했다. 그런데철학자가신관념을정하든아니면그가이를확정불가능이라고선언하든, 그가이에이성을가지고접근하든아니면그것을이성에서멀리떼어놓든, 이관념은공격을입는다고나는말한다. 사변이 멈추는것은불가능하니장기적으로신관념은반드시사라진다. 그러므로무신론운동은신학적비극의제 2 막이다. 그리고이제 2 막은제 1 막에의해주어지며, 결과가원인에의해주어지는것과마찬가지다. 시편의시인은하늘은영원한존재의영광을이야기한다고말한다. 이렇게덧붙이자. 그리고하늘의증언은그를권좌에서내쫓는다고.

사실상 사람은 현상들을 관찰함에 따라 자연과 신 사이에서 중간자들을 본다고 믿는다. 이는 수효, 형상 그리고 계기(繼起)의 관계들이다. 유기적 법칙, 진화, 유비들이다. 이는 발현물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혹은 서로를 변함없이 부르는 일정한 연관이다. 그는 자신이 그 일부를 이루는 이 사회의 발전에서 사적의지와 과속의들이 공동으로 무언가를 위해 들어간다는 것도 관찰한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영이 세상에 직접, 그리고 몸소 작용하지 않으며, 자의적으로 변덕에 따라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감각적 힘이나 감각 기관에 의해, 그리고 규칙에 따라 매개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생각에 의해 인과의 사슬을 거슬러 올라가 그는 신을 균형 잡는 막대에서 처럼 한 쪽 끝에 가져다 놓는다.

모든 하늘 저 너머에 하늘의 신이 산다

이렇게 한 시인이 말한다. 이처럼 이론의 첫 번째 도약으로부터 지고의 존재는 동력, 바퀴통, 홍석(虹石)의 기능으로 전락하며, 좀더 시시한 비유를 해본다면 군림하지만 다스리지 않는, 법률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장관들을 임명하는 입헌군주의 기능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자신을 매혹하는 신기루의 인상 때문에 유신론자는 이 우순 체계에서 우상의 경이성의 새로운 증거만을 본다. 이 우상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자신의 권능에 수단으로 봉사하게 하며, 인간들의 지혜를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게 한다고 본다.

곧, 영원한 존재의 왕국을 제한하는데 만족하지 못해서 인간은 점점 더 신을 죽게 하는 존경으로써 그 왕국을 분점하기를 요구한다.

내가 영이고, 감각적이며 관념들을 내놓는 자아라면, 나 역시 절대적 존재에 뭣이 있다고 유신론자는 계속하여 말한다. 나는 자유롭고, 창조자이고, 불멸하고, 신과 동격이다. 코기토 에르고 수(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바로 이것이 '에고 수미 수 Ego sum qui sum : 나는 (존재하는) 나이다'의 보조명제요 번역이다. 철학은 성서와 일치한다. 신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성은 동일한 판단으로 의식에 의해서 주어진다. 전자에서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그 안에서 움직여가는 우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고, 후자에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길과 저 길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한다.

영혼의 불멸성은 신성으로부터의 진정한 분리이며, 오랜 간격 후에 그 최초의 출현 순간에는 옛 교리의 신자들에게는 이 단으로 나타났지만 신적 위엄의 보완물, 행복과 영원한 정의의 필수적 전제물로 덜 간주된 것은 아니다. 영혼의 불멸성이 없으면 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정치 이론가들과 비슷한 유신론자들이 말한다. 정치 이론가들에게는 주권적 대표부 와 어디서나 종신적인 공무원들이 왕정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학설들의 유사성이 정확한 만큼 관념들의 모순은 명백하다. 역시 영혼 불멸의 교리는 곧 철학적인 학자들의 걸림돌이 되었다. 이들은 피타고라스와 오르페우스의 세기부터 신적 특성들을 인간의 자유와, 이성을 신앙과 일치시키려고 쓸데

우연이나 부주의에 의해 교환이 생산자들 중 한 사람에게 금지되거나 그의 산물이 갑자기 쓸모없어지게 되면, 그의 창고가 가득차 있는데도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니 유용한 가치와 교환 가능한 가치의 관계에서 나온다. 그가 희생을 많이 하고 생산을 하려는 만용을 많이 부렸을수록, 그의 빈곤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산물이 쓸모가 완전히 사라지는 대신 단지 축소되었다면, 이는 백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노동자는 일자리를 박탈당하고 재앙을 겪어서 망하는 대신 가난해지기만 할 것이다. 남의 가치의 미미한 양을 대가로 받고 자기 가치의 다량을 내주어야 해서 그의 생존은 그의 판매의 적자와 같은 비율로 축소될 것이다. 이는 그를 안락함으로부터 궁색한 상태로 접착이 끌어갈 것이다. 끝으로 산물의 쓸모가 높아지거나 또는 그 생산에 드는 비용이 덜 나가게 된다면 교환의 저울은 생산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 것이고, 그 생산자의 복리는 이렇게 해서 발가는 자의 별불일 없는 처지에서 서부터 일 없이 노는 자의 풍요로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감각과 부요화의 현상은 천가지 형태로, 천가지 조합으로 발현된다. 상공업의 열면 그리고 난감한 역할은 여기에 있다. 경제학자들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믿는 것은 매복작전으로 가득찬 도박이며, 도덕 및 정치 과학 아카데미는 이윤과 임금의 이름으로 유용한 가치와 교환 가치를 화해시키기를, 즉 일체의 유용한 가치들을 마찬가지로 교환 가능하게 하고, 역으로 일체의 교환 가능한 가치를 마찬가지로 유용하게 할 수단을 발견할 것을 요구할 때, 알지 못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그 도박의 폐지이다.

경제학자들은 가치의 이중적 특성을 아주 잘 부각시켰다. 그러나 그들이 마찬가지로 말끔하게 만들지 못한 것은 그것의 모순적 본성이다. 여기서 우리의 비판이 시작된다.

유용성은 교환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교환을 제거해 보라. 그러면 유용성은 무(無)가 된다. 이 두 용어는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니 모순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노동과 교환에 의해서밖에 존속하지 못하며,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하고 교환하는 그만큼 더 부유하므로 각자에게 그 결과는 그만큼의 교환을 늘리고 이로써 그의 향유를 늘리기 위해 유용한 가치를 가능한 최대로 많이 생산하는 것이다. 좋다! 가치배가의 제 1 의 효과, 불가피한 효과는 가치들을 저렴하게 하는 것이다. 상품이 더욱 풍부할수록 그것은 교환에서 손해를 보고 상업적으로 감가한다. 노동의 필요성과 그 결과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 정말이 아닌가?

나는 설명을 향해 정면으로 달려가기 전에 독자에게 사실에 유의하도록 간청한다.

밀스무자루를 수확해 자기 가족과 함께 먹을 생각인 농부는 열자루만 수확한 경우보다 두배가 부유하다고 스스로를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천원 마를 째 주부는 스물다섯 마 밖에 찌지 못한 경우보다 두배가 부유하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가정에 관련해서는 그들 둘 다 옳다. 그러나 외부관계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완전히 틀렸을 수 있다. 밀의 수확이나 라전체에서 두배라면, 스무자루는 수확이 절반이었더라면 열자루 가지녔을 가치보다 더 낮은 가치를 지닐 것이다. 또한 비슷한 경우에 천원 마는

하지만 효용가치는 어떻게 교환가치가 되는가? 왜냐하면, 가치의 두 종류는 생각안에서는 (전자는 후자를 계기契機로 해서만 인식되므로) 동시적인데도 불구하고 계기繼起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교환 가능한 가치는 유용한 가치의 어떠한 반사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이는 신학자들이 삼위일체에서 성부가 일체의 영원을 사색하면서 성자를 낳는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가치관념의 발생은 경제학자들이 충분히 주의 깊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점에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 중에 아주 많은 수가 자연에는 미미한 양으로 밖에 존재하지 않거나 전혀 없으므로, 나는 내게 결여된 것의 생산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많은 것들에 착수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직능을 가진 다른 사람들, 내 협력자들에게 그들의 산물 일부를 내 산물과의 교환으로 내게 양도하라고 제안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특정한 산물을 언제 내게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짝들은 각자의 산물을 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질 것이다. 이 무언의 협정은 거래에 의해 실행된다. 이때 우리는 두 가치의 논리적 계기繼起가 이론에서보다 역사에서 더 잘 나타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산업이 사람들에게 어찌 교환이라도 생겨나게 해주기 전에 이들은 자연적 재화들 (이는 사람들이 원시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을 차지하려고 다투면서 수천년을 보낸 것이다.

그런데 자연적이든 산업적이든 모든 산물이 가지는 사람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능력은 특별히 효용가치라고 칭해진다. 그 산물들이 서로 대가로 제공될 수 있는 능력은 교환가치라고 칭해진다. 근본적으로 이는 같은 것이다. 후자는 전자에 대체代替의 관념을 더해 줄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가한 미묘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실무에서는 그 결과들이 놀랍고, 번갈아가며 다행스럽다 가치 명적이었다가 한다.

이처럼 가치에 설정된 구분은 사실에 의해서 주어지며, 아무런 자의적인 것도 없다. 이 법칙을 자신의 행복과 자유의 이익이 되게 돌리는 것은 이 법칙을 감수하는 사람의 몫이다. 발라 (Walras) [10] 씨라는 작가의 아름다운 표현에 따르면 노동은 자연의 인색함에 대해서 포된 전쟁이다. 이에 의해서 부와 사회가 동시에 생겨난다. 노동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한다. 이처럼 프랑스의 제화업자들만 해도 페루, 브라질, 멕시코의 광산들을 합친 것보다 열배는 더 많은 것을 생산한다. 그러나 노동은 자연적 가치들에게 가하는 변형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확장하고 무한히 배증해서 점차로 모든 부가 산업적 계통을 거쳐서 그것을 창조한 자에게 돌아가며, 1 차원료의 보유자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경제 발전의 진행이다. 처음 순간에는 토지와 자연적 가치들이 전유된다. 그 다음에는 노동에 의한 조합과 분배가 완전한 평등에까지 계속된다. 우리의 길 위에는 여기저기 함정들이 파여 있고, 우리 머리 위에 칼이 매달려 있다. 그러나 일체의 위험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는 이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성은 전능이다.

없이 노력하는 이들이다! 불신자들을 위한 승리의 주제다! ... 그러나 환상은 그렇게 빨리 물러날 수 없었다. 영혼 불멸의 교리, 이는 바로 그것이 창조되지 않은 존재의 제한이었기 때문에 진보였다. 그런데 인간 정신이 진리의 부분적 획득으로 잘못을 범하더라도, 이는 결코 퇴보하지 않으며, 그 발걸음에서 어찌 준함은 그의 불가오류성의 증거다. 우리는 그 새로운 증거를 획득할 것이다.

신과 닮음으로서 사람은 신을 자신과 닮게 만들었다. 수세기 동안 혐오스러운 것으로 칭해진 이상관성은 새로운 신화를 결정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 가부장들의 시대에 신은 인간과 연합했다. 지금 협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신은 인간이 되려고 한다. 그는 우리의 살, 우리의 용모, 우리의 열정, 우리의 기쁨과 고통을 취할 것이며, 한 여성에게서 태어나 우리처럼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무한의 이 낮아진 후에 사람은 논리를 전환해 그때까지는 창조자라고 불렀던 자를 보전자, 구속자救贖者로 자신이 신의 이상을 더 키웠다고 주장할 것이다. 인류는 아직은 '신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신은 내 안에 있다, 임마누엘, 신이 우리와 함께 nonis cum Deus 있다고. 그리고 철학이 고집을 가지고, 보편적 양심이 경악하면서 한 목소리로 '신들이 도망친다 excedere deos' 고 외친 순간, 영광적 찬미와 초인적 신앙의 열여덟 세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숙명적인 종말이 찾아온다. 윤곽이 그려지는 모든 왕국은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 Demagogy 로 끝날 것이다. 정의定義가 되는 일체의 신성은 북마전 Pandemonium 으로 해소된다. 그리스도 숭배는 인간 사상의 이긴 진화의 종착점이다. 천사들, 성인들, 처녀들이 신과 함께 하늘에서 다스린다고 교리 문답에서 말한다. 마귀들과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서 산다. 초세속적 사회에는 원편과 오른편이 있다. 방정식이 완결될 때가 되었고, 이 신비적 위계 질서가 땅으로 내려와 현실에서 나타날 때가 되었다.

연못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첫 번째 여자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끌어안기 위해 팔을 벌리는 것을 나타낼 때 밀턴 [4] 은 펜놀림마다 인류를 그린 것이다. 그대가 찬양하는 이신, 오 사람이여! 그대가 만드신, 선하고 정의롭고 전능하고 전지하고 불멸하며 거룩한 신, 이는 그대 자신이다. 이 완전함의 이상은 그대 양심의 열렬한 거울에 정화된 그대의 모습이다. 신, 자연과 사람은 동일한 존재의 세 모습이다. 사람은 천번의 진화를 거쳐 자의식에도 달한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스스로 신임을 느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참으로 신이자 참으로 인간의 종교이다. 애초부터 '나' 라고 말한 신 말고 다른 신이 없다. '그대' 말고 다른 신이 없다.

이런 것이 종교의 신비와 자신의 신비를 벗겨내면서 시효가 끝나는 철학의 마지막 결론이다.

II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인류가 스스로를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신비화하기를 그만두면서 신학적 문제는 영영 제거되는 것 같다. 신들은 떠났다.

사람은더이상이기주의로염려하고죽을필요가없다. 내주위로얼마나무서운고독이펼쳐지며, 내영혼의바닥을파고드는가! 나의고양高揚은소멸과닿았으며, 내가신이된이래로나는자신을더이상그림자로밖에보지않는다. 나는언제나나인것이가능하지만나를절대자로간주하는것은내게아주어렵다. 그리고내가절대자가아니라면나는관념의절반일뿐이다.

약간의철학은종교와멀어지게하며많은철학은종교로데려다준다고, 내가모르는어떤냉소적인철학자가말했다. 이관찰은부끄럽게만드는관찰이다.

모든과학은이어지는세시기를거치며발달하는데, 이를문명의거대한시기들에비유해종교적시대, 궤변적시대, 과학적시대로부를수가있다.[5] 이와같이연금술은나중에게서화학이라고불린, 그리고그확정된구조圖가아직발견되지않은과학의종교적시기를가리킨다. 이는점성술이또다른과학적건축물인천문학의종교적시기를이루는것과똑같다.

그런데, 보라. 60 년간현자의돌을조롱한후에화학자들은경험에이끌려더이상감히물체의전이가능성을부정하려하지않는다. 반면에천문학자들은세계의역학 mécanique 에의해, 세계의유기체학 organique, 즉바로점성술같은그무엇이있지않나생각하게된것이다. 내가방금인용한철학자의예를따라약간의화학은현자의돌을외면하게하고, 많은화학은현자의돌로데려다준다고, 그리고비슷하게약간의천문학은점성술자들을비웃게만들고많은천문학은점성술사들을믿게할것이라고말해야할경우가아닌가?[6]

나는확실히여러무신론자들보다기적에대한취향은덜가지고있다. 하지만나는기적과연, 주술등이어떤잠재적힘들에의해, 혹은옛날에그렇게언급되었듯이비의적능력에의해생성된이상한효과를말하는왜곡된이야기들일뿐이라는생각을금할수없다. 우리의과학은아직아주잔혹하고아주악의로가득차있다. 우리의박사들은그리보잘것없는지식에대해주큰물상식을보여준다. 그들은자신들이전개하는견해를보호하기위해자신들에게방해가되는사실들을아주뻔뻔하게부정해서, 나는이강한정신의소유자들을무당들과마찬가지로불신한다. 그렇다, 나는확신한다. 우리의조잡한합리주의는많은과학정신에의해정말로경이롭게될시대의출범이다. 우주는내눈에는모든것을기대해야할마술의실험실일뿐이다.... 이렇게말해두고서내주제로돌아간다.

그러므로내가종교적진화들에대해행한빠른해설후에누가상상하기를형이상학이다음의네날말, 신의존재 l'existence de Dieu, 영혼의불멸에관해최종답을말했다고생각하려했다면그는잘못에빠지는것이다. 다른데서도그렇지만여기서, 이성이가장선진적이고가장잘확립된결론, 신학적문제를영구적으로해결한것으로여겨지는결론은우리를시원始原의신비주의로데려가며, 불가피한철학의새로운자료들을함축한다. 종교적견해들에대한비판은우리로하여금오늘날우리자신에대해, 그리고종교들에대해웃음짓게한다. 그렇기는하지만이비판의요체는문제의재생산일뿐이다. 인류는, 내가글을쓰고있는시점에, 인류에게고대의신관념과동등한무엇인가를인식하고언명하기직전에있다. 그리고

제 2 장 가치에 관해

1. 효용 가치와 교환 가치의 대립

가치는경제라는건축물의모퉁잇돌이다. 우리에게자신의일을계속해나가도록위임한예술가인신은누구에게도이를설명하지않았다. 그러나약간의표시들을보고서사람들이이를짐작한다. 가치는실제로두얼굴을하고있다. 하나는경제학자들이사용가치혹은가치그자체라고부르는것이다. 또하나는교환가치혹은여론상의가치이다. 이두측면에서가치가낳는효과, 그것이결코안정되지않은한에서, 혹은더철학적으로표현해서그것이구성되지않은한에서아주불규칙적인효과는이구성에의해완전히달라진다.

그런데, 유용한가치와교환가치의상관성은어디있는가? 구성된가치라는것은어떻게이해해야하며, 어떠한반전에의해이구성이실행되는가. 이는정치경제학의대상이자목표이다. 나는독자에게앞으로이어지는것에모든주의를기울일것을간청한다. 본장은이저서에서약간의선의를요하는유일한장이다. 내편에서는점점더단순하고명확하게하고자노력할것이다.

내계약간의도움이될수있는모든것은가치를가진다. 그리고나는쓸모있는것이풍부할수록그만큼더부유하다. 이점에는아무어려운것도없다. 우유와고기, 과일과곡식, 털, 설탕, 면화, 포도주, 금속, 대리석, 끝으로토지, 물, 공기, 불과태양은내게사용가치, 본성과용도상가치이다. 내생존에도움이되는모든것들이그것들중어떤것들, 예를들어빛만큼풍부하다면, 다시말해각종가치들의양이무한정이라면내안녕은영원히보장될것이다. 나는일할필요가없을것이며, 생각도하지않을것이다. 이런상태에서는물건들에언제나효용이있을것이지만, 그것들이가치를띤다고말하는것은더는참이아닐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곧알아보겠지만가치는본질상사회적관계를가리키기때문이다. 그리고우리가유용성이라는관념을획득한것은그자체가오직교환에의해서, 사회로부터자연으로일종의회귀를시킴에의해서이다. 문명의모든발전은그러므로끊임없이새로운가치들의의창조를촉발해야하는인류가처한필요성에관계된다. 마찬가지로사회학들은우리가우리자신의관성에맞서벌어지는지속적인투쟁에그제 1 원인을가진다. 사람에게서그의사고에촉구를하고, 그의사고를사색적생활에맞게만드는이필요를없애보라. 그러면창조의작업반장은네발달린동물의첫번째에지나지않을것이다.

지지 않으며, 그리스도교가 행한 선은 정치경제학에 의해 확실성의 증거로 호출될 수 없다. 자선과 헌신의 효과들은 경제의 영역밖에 있고, 경제는 사회의 행복을 노동의 조직과정으로써 획득해야 한다. 잉여에 대해서는 나는 재산권 메커니즘의 다행스러운 효과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효과가 이 메커니즘이 본성상 낳게 되는 빈곤에 의해 완전히 덮이는 것을 관찰한다. 그래서 한 저명한 장관이 영국의 회관에서 얼마 전에 실토했듯이, 그리고 우리가 현 사회에서 이를 곧 증명하겠지만 빈곤의 진전은 부의 진보와 병행하고 이에 들어맞는다. 이는 정치경제학의 공로들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경제학은 그 격률에 의해서도 그 업적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주의에 관해 말한다면, 그 모든 가치는 정치경제학을 확증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경제학에 대한 고찰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 정치경제학만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사회과학의 소재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론들이 약간의 오류를 숨기고 있지 않은지를 증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 사실과 당위를 화해시킬 것이고, 인류의 유기적 법칙을 드러내어 줄 것이고, 질서의 적극적 개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는 옛날처럼 더 이상 자생적 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찰을 하며,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변증법의 힘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불과 몇 마디 말로 내 의견을 피력할 것이다.

철학자들이 주저하기는 했지만, 마침내 의견의 일치를 본 한 가지가 있다면, 이는 의문의 여지 없이 이성 과 필연성의 구분, 사유의 주체와 객체의 구분, 아我와 비아非我의 구분이다. 세속적 용어로 말하면, 정신과 물질의 구분이다. 나는 이 모든 용어들이 아무런 실질적이고 참된 것도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 그것들 각각은 유일하게 참이고 실재인 절대적 분리를 지칭할 뿐이라는 점, 그리고 별개로 본다면 그것들 모두는 똑같이 모순을 함축한다는 점을 잘 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또 한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은 완전히 접근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는 오직 우리의 경험주의의 대상으로 들어오는 대립항들에 의해서만 절대를 안다는 것, 그리고 단일성이 우리의 신심을 획득할 수 있지만, 이원성은 과학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누가 생각하며 무엇을 생각하는가? 영혼은 무엇이며, 몸은 무엇인가? 나는 이 이원론을 회피할 때면 해보라고 말한다. 본질들도 관념들과 마찬가지로이다. 전자는 자연 안에서 분리된 것처럼 보인다. 이는 후자가 오성 안에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신관념과 영혼 불멸의 관념이 그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철학에서는 계기적으로, 그리고 모순적으로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아와 비아는 절대 안에서 융합됨에도 불구하고 자연에서는 별개로, 그리고 모순적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들과 동시에 생각하지 않는 다른 존재들도 대한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를 성찰하는 수고를 한 사람이라면, 오늘날 그러한 구분은 비록 실현되었더라도 이는 이성이나 주칠 수 있는 더 불가해하고 더 모순적이고 더 터무니없는 것임을 안다. 존재는 물질의 속성들 없이 스스로를 의식하지 않듯이 정신의 속성들 없이도 스스로를 의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이 시간, 공간, 운동, 확고성 등의 범주들 중 어떠한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당신에게는 실재를 구성하는 모든 특성들을 상실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며 당신이 정신을 부정한다면, 나는 나를 대로 피동성 말고는 내게 아무런 상당한 것도 내놓지 않고, 그 형태 말고는 아무런 분간할 수 있는 것도 내놓지 않아서 조금도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원인으로 서 나타나지 않으며, 실제로서 완전히 종적을 감추는 물질을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순수관념론, 즉 무무에도 달한다. 그러나 무는 살아 있고 사고를 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자신들 안에서 시작된 종합 혹은 임박한 분리의 (어느 쪽인지 모를) 상태에서 존재의 모든 적대적 특성들을 결합하는 것들에게 혐오감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원론, 우리가 그 항들이 거짓임을 완벽히 알지만 우리에게 참의 조건이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의무를 지우는 이원론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 마디로 데카르트와 함께, 그리고 인류와 함께 나의 해, 즉 정신에 의해서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종교들과 철학들이 분석을 통해 분해되어 절대적 이론 안에 녹게 된 이래 우리는 정신이라는 것을 더 잘 아는 것이 아니며, 이 점에서 우리를 포위하는 모호성을 치장하는 언어의 풍부성에서 만 옛날 사람들과 차이가 난다. 다만, 옛사람들에게 질서는 세상 바깥의 지성을 드러나게 한 반면에, 현대인들에게 그것은 오히려 세상

안에서의 지성을 드러내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지성을 안에 두든지 바깥에 두든지, 질서에 힘입어 그 지성을 언명하는 순간부터 질서가 드러나는 곳 어디서나 그 지성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디서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팔면체로 결정을 이루는 물체에 지성이 있다고 보는 것보다 『일리아드』를 지은 머리에서 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많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역으로 마렝고에서 거둔 승리를 제 1 집정관을 고려하지 않고 전략적 조합 덕분이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조정자인 아를 감안하지 않고 세상의 체계를 물리법칙들에 관계시키는 것은 터무니없다. 둘 수 있는 차이라고는, 전자의 경우에는 사고하는 자아가 보나파르트의 뇌에 자리잡은 반면에 우주에 관련해서는 자아는 특수한 위치가 없이 편재한다는 데 있다.

유물론자들은 사람이 우주를 자신의 몸과 비슷하게 보아서 우주에 자신의 삶과 생각의 원리라고 가정한 자신의 영혼과 비슷한 영혼을 부여해 그 비교를 완수했다고, 그래서 신의 존재의 모든 논거들은 비교항 자체가 가설적인 만큼 더욱 거짓된 유비로 전락한다고 말함으로써 반대의 견해에 대해 우위를 점했다고 믿었다.

확실하나는 다음과 같은 낡은 삼단 논법을 옹호하지 않는다. 일체의 배치는 조율하는 지성을 가정한다. 그런데 우주 안에는 경탄할 만한 질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의 지성의 작품이다. 이 삼단 논법은 욕과 모세 이래로 아주 많은 이박을 받아서 해결책이 되기는 커녕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공식일 뿐이다. 우리는 질서가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안다. 그러나 영혼, 정신 혹은 지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모른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현존으로부터 다른 것의 현존을 논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가? 그러므로 나는 더 풍부한 학식을 가진 자가 했다 해도 세상의 질서로부터 신의 존재 증명을 끌어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껏해야 철학에 제안된 방식만을 거기서 볼 것이다. 질서의 개념으로부터 정신의 언명까지는 메워야 할 형이상학적 심연이 놓여 있다. 나는 또 다시 문제를 증명으로 간주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이는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는 인간이 성이 숙명적이고 불가항력적으로 존재를 아와비아, 정신과 물질, 영혼과 몸으로 구분하도록 이끌린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런데 유물론자들의 반론이 그것이 부정의 대상으로 삼는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누가 보지 못하는가? 사람은 자신 안에서 영적인 원리와 물질적인 원리를 구분하니, 자신의 이중적 본질을 하나씩 선포하고자 자기 자신의 법칙을 증명하는 자연 자체 말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유물론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점에 유의하자. 그것은 사람이 자유롭다는 것을 부인하며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사람이 자유를 덜 거질수록 그것이 하는 말은 더 중요성을 획득하고 진리의 표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신이 영혼이며 몸이라고 내게 말하는 이 기계의 말들을 들 때, 그러한 계시는 나를 놀라게 하고 어리둥절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유물론자의 권위보다 비교도 안 되게 큰 권위를 띤다. 유물론자는 의식과 자연을 교정해 그것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나는 물질이며, 물질 말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성은 삶의 물질적 능력일 뿐이다.’

이처럼 노동분업은 그것 없이 생산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될 것인데, 이는 오만가치 폐단을 겪으며, 그 중 최악은 노동자의 의기소침이다. 기계들은 저가격과 함께 충색 充塞과 실업을 낳는다. 경쟁은 탄압을 가져온다. 조세는 사회의 물질적인 연계로서 아주 흔히 화재나 우박에 맞먹는 무서운 도리깨일 뿐이다. 신용은 반드시 파산과 상관관계를 이룬다. 재산권은 여러 가지 남용의 온상이다. 상업은 주사위 놀이로 변질되고 거 거서는 심지어 때때로 속이는 것이 허락된다. 간단히 말해서 질서가 어떻게 무질서를 제거하기에 이를지 모르는 가운데 무질서나 어디서나 질서와 같은 비율을 이루어 (taxis ataxian diôkein) 경제학자들은 모든 게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입장을 취했으며, 일체의 개선 제안을 정치경제학에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사회적 건축물은 방치되었다. 군중이 공사장에 밀려들었다. 기둥들, 기둥 윗머리, 기둥 받침, 목재, 돌, 금속이 여러 몫으로 분배되고 추첨되었으며, 웅장한 사원을 위해 모아진 이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무식하고 야만적인 재산권이 오두막집들을 지었다. 그러므로 건축 설계도를 되찾는 것만이 아니라 입주자들을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주지가 훌륭하다고 주장하며, 복고 restoration 이라는 말만 마디에 자신들의 문앞에서 전투대형을 취하는 자들이다. 그러한 혼동은 옛날 바벨에서도 없었다. 다행히도 우리는 프랑스어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동료들보다 더 용감하다.

은유를 그만 두자. 역사적, 서술적 방법은 인식만 할 필요가 있었던 한에서는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쓸모없다. 수천 권의 단행본과 표들이 나왔지만 우리는 크세노폰과 헤시오도스의 시대보다 더 앞서지 못했다. 페니키아인들, 그리스인들, 이탈리아인들은 옛날에 우리가 오늘날 하는 것처럼 일했다. 그들은 경제 기술의 모든 규칙들에 따라 자돈을 투자했고, 일꾼들에게 임금 주었고, 영지를 넓혔고, 발송과 회수를 했으며, 장부를 적었고, 투기를 하고, 이차 거래를 하고 망했으며, 우리 못지 않게 독점권을 차지하고, 소비자와 일꾼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데 능숙했다. 이 모든 것으로 관계들이 넘쳐났다. 그리고 우리가 영구적으로 우리의 통계와 수치들을 다시 들여다 볼 때 우리는 언제나 눈앞에 혼돈, 부동의 한결 같은 혼돈을 대할 것이다.

정말이지 사람들은 신화 시대부터 우리의 대혁명 57 주년 인 현재까지 일반의 행복이 증가했다고 믿는다. 그리스도교는 오랫동안 이 개선의 주된 요인으로 통해왔으며, 경제학자들이 현재는 자신들의 원리에 그 개선에 대한 일체의 영예를 구걸한다. 왜냐하면 결국 그리스도교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이다. 생겨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유평파적인 그리스도교는 점차 일체의 경제적 범주들, 노동, 자본, 임대료, 이자, 거래, 재산권을 채택함으로써만, 한마디로 정치경제학의 최고 표현인 로마법을 신성화함으로써만 유지되고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그 신학적 부분에서는 생산과 소비에 관한 이론들에 생소하면서 유럽 문명에서는 최근에 더 돌이 일꾼들에게 공제회와 프리메이슨, 일종의 보험 및 상조 계약이던 것이었다. 이런 관계 아래 그리스도교는 정치경제학에 아무런 빛도

사회에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를 탐구하기 전 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상관행은 저자들이 그 난장판과 상충성에도 불구하고 아주 거창하게 자신들의 책에서 법칙, 원리,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까다로운 부지런함으로 수집되고 엄격한 불변부당성을 가지고 서술되어야 했다.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그 과학의 나중의 진보가 요할 것보다 아마도 더 많은 천재성, 특히 더 많은 헌신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경제학이 오늘날에도 현실에 대한 지식이라기보다 오히려 미래를 향한 열망이라면, 이 연구의 요체들이 모두 정치경제학에 있다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의견이 사상계의 엄청난 다수의 견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일반적 정서를 표현한다고 믿는다. 정말이지 현재에 대한 옹호자는 별로 없다. 그러나 유토피아에 대한 기피는 그에 못지 않게 보편적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진리가 이 두 용어, 보존과 운동을 화해시킬 공식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또한 아담 스미스, 장바티스트 세, 리카도, 맬서스 그리고 이들의 괴상한 반박자들 덕분에 운명의 비밀, 부자의 방들 atria Ditis 이 드러났다. 자본의 득세, 노동자 탄압, 독점의 기계화가 모든 점에서 밝혀져서 여론의 시선 앞에서 뒷걸음질한다. 경제학자들이 관찰하고 묘사한 사실들에 관해 사람들은 추론하고 추리한다. 남용의 권리들, 약한 습관들은, 이것들을 살린 모호성이 지속된 만큼 오랜 기간 존중을 받다가 대명천지에 끌어내지자마자 일반의 질타를 받고 명운을 다한다. 사회의 통치는 공허한 이데올로기 안에서 사회계약의 양식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몽테스키외가 사물들의 관계에서 분간한 대로 습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상당히 사회적 인성향을 가진 좌파는 학자, 집정관, 법률가, 교수 심지어 자본가 그리고 산업계 수뇌 등 특권의 대표자들이 옹호자로 태어난 자들, 그리고 백만의 숙련 기술자들로 구성되어, 민족 내에서의 회의의 여론 위에 그리고 바깥에 위치해 경제적 사실들의 분석에서 여러 사회들의 생명의 비밀을 파악하기를 추구한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을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 자재들이 준비하게 놓인 광대한 평원으로 나타내자. 일꾼들은 열의에 가득차고 일에 착수하려는 마음에 불타 신호를 기다린다. 그러나 건축가는 설계도도 놔두지 않고 사라졌다. 경제학자들은 수많은 것들에 대한 기억을 간직해온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견적서의 그림자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각 조각의 기원과 역사적 내력, 그 제작비용, 어떤 목재가 최상의 대를 보게 되는지, 어떤 흙을 써야 최상의 벽돌이 되는지, 작업 도구와 리어카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목수는 얼마의 이익을 보는지, 석수는 얼마를 버는지를 안다. 그들은 어떤 것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를 모른다. 경제학자들은 눈앞에 거지 거던 저건 조각의 부분들을, 사지가 절단된 시인의 팔다리(disjecti membra poetoe)를 보고 있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현재까지 일반적 조감도를 재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약간의 접근을 시도할 때마다 앞뒤가 안 맞는 것들에 만부닥쳤다. 결국 결과도 없는 조합에 절망해 그들은 과학의 건축상의 부적합, 혹은 그들이 말하듯이 그 원리들의 폐단들을 교리로 세우고 말았다. 한마디로 그들은 과학을 부정했다.[9]

이번에는 내가 공세를 취해서, 몸들의 존재, 다시 말해 순수하게 몸을 지닌 자연의 실재성이 얼마나 무근거한 견해인지를 증명한 다음에 찢을 것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물질은 불투과성이다. 무엇에 대한 불투과성인가? 나는 묻는다.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다. 왜냐하면 이는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되기에 정신에 대해서라고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그것에 대해 당신이 아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의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 물질을 정의하는 수단이라고 주장되는 불투과성은 부주의한 물리학자들의 가설일 뿐이고, 피상적 판에서도 출된 거친 결론이다. 경험은 물질에 무한한 가분성, 무한한 팽창성, 지정 가능한 한계 없는 다공성, 열, 전기, 자기장에 대한 침투성, 동시에 그것들을 붙잡아 두는 성질, 부정형의 성질들, 친화성, 상호영향,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변형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은 불투과성의 무언가의 자료와는 별로 양립 가능하지 않다. 전기는 물질의 다른 어떤 성질보다 더 반발이나 저항의 관념으로서 불투과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으로, 천 가지 상황에 따라 변하며 온전히 분자적인 인력(力)에 좌우된다. 그런데 이 인력보다 더 불투과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끝으로 엄밀하게 물질의 투과성의 과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과학이 존재하며, 이는 화학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화학적 조성이라고 칭하는 것은 투과와 어떻게 다른가.[7] ... 한마디로 물질로부터는 그 형태밖에 알 수가 없다. 실체에 관해서는 무지하다. 그러므로 비가시적, 불가촉적이고, 강제 불가능하고 언제나 변화하고 언제나 달아나며, 생각에 오직 불투과성이라서 자신에 관해 그 변장한 모습만 보게 하는 존재의 실재성을 단언하는 것이 어찌 가능한가? 유물론자여! 나는 당신에게 당신 감각의 실재성을 증언하기를 허락한다. 그 감각들을 유발하는 것에 관해 말한다면, 당신이 그에 관해 말하는 모든 것은 다음의 상호성을 함축한다. (당신이 물질이라고 부르는) 무언가는 (내가 정신이라고 칭하는) 다른 무언가에도 달하는 감각들의 유발 요인이다.

2. 하지만, 외적 관찰에서 아무것도 정당화 해주지 않는, 참이 아닌, 물질의 불투과성이라는 이 가정은 어디서 나오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이원론의 승리가 나타난다. 물질은 유물론자들과 대중이 상상하듯 감각의 증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식에 의해서 불투과성이라고 선언된다. 자아, 불가해한 자연은 자신을 자유롭고 독특하고 영원하다고 느끼고 자기 바깥에서 마찬가지로 불가해한 그러나 역시 독특한, 그 형질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다른 자연을 만나면서, 이 본질이 암시해주는 감각과 관념 덕택에 비아非我가 연장延長을 가지고 불투과성이라고 선포한다. 불투과성은 형상적인 낱말로써, 사고, 절대적 분열이 또 다른 절대적 분열인 물질 실재성을 떠올리는 이미지다. 그러나 불투과성은 그것 없이는 물질이 사라지는 것으로서 결국 내적 감각의 자생적 판단, 정신의 ... 형이상학적 선형, 입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이처럼, 철학이 신학적 교조주의를 전복한 후에 물질을 정신화하건, 사고를 물질화하건, 존재를 관념화하건, 관념을 실재화하건, 실체와 원인을 동일시해 어디

서나힘을대신등장시키건,— 모두아무것도설명하지못하고아무것도의미하지 않는문장들인데 — 언제나철학은우리를영원한이원론으로데려가며, 우리자신을믿도록우리에게통첩을보내면서우리로부터금정신을믿을것이아니라면신을믿도록의무화한다. 정신을자연에서분리한옛사람들과달리정신을자연으로다시들어가게하면서철학은다음의유명한결론, 연구의모든결실을거의다요약한결론으로이끌었다. 사람안에서정신은스스로를아는반면에다른곳에서는어디서나정신은스스로를알지못하는것처럼여겨진다. “사람안에서깨어있는, 동물안에서꿈을꾸는그리고돌안에서잠을자는것…”이라고한철학자는말한다.

철학은그마지막시간에, 그러므로자신의탄생때알던것보다좀처럼더많이알지못한다. 마치그것이소크라테스의말을입증하기위해서만세상에나타난듯이 엄숙히자신의몸을세마포로덮으면서우리에게이렇게말한다. 나는내가아무것도모른다는것을안다. 나는무엇을말하는가? 철학은오늘날자신의모든판단이 똑같이거짓되어도똑같이불가능하고그렇지만똑같이필연적이고숙명적인두가설, 물질과정신위에기초를둔다는것을안다. 그래서옛날에는종교적불관용과철학적불화가어디서나후암을드리우면서의문을용서하고, 호색적방종으로초대한반면에, 모든사항들에대한부정의승리는더이상이런의문도허락하지않는다. 일체의질곡에서벗어난, 그러나자기자신의성공에의해정복된사상은자신에게명확히모순적이고터무니없어보이는것을긍정하지않을수없다. 야만인들은세상이거대한영의보호를받는거대한주물呪物이라고말한다. 30 세기동안시인, 입법자, 문명의현자들은세세로철학의등잔불을전승해오면서이신앙과백보다더숭고한것을적은적이었다. 그리고보라. 스스로를철학이라부른신에맞선이긴음모의끝에해방된이성은야만적이성으로서이렇게결론을짓는다. 우주는아我에의해객체화된비아非我이다.

그러므로인류는숙명적으로신의존재를가정한다. 그리고우리시대에끝을맺는긴기간동안인류가자기가설의실재성을믿었다면, 그상상할수없는물체를찬양했다면, 이신앙행위에서로잡힌후에인류가자기자신의사상의인화일뿐이라고알고있는주권적존재에대한이견해를뻗히알면서도더이상자유롭지는않게지속한다면, 인류가자신의마술적주문을재개하기직전이라면, 그토록놀라운황홀경은깊이파고들가치가있는무언가신비적인것을감추고있다고믿을필요가있다.

나는황홀경과신비를말하지만, 그렇다고해서이로써신관념의초인적내용을부인하노라고주장하지는않는다. 새로운상징주의의필요성, 말하자면새로운종교의필요성을인정하는것도아닌것과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인류가신혹은자아나정신의이름으로원할모든것을긍정하면서자기자신을긍정할뿐이라는점은의문의여지가없기때문이다. 인류가그렇다면스스로를안다는것말고다른것으로서스스로를긍정한다는점도부인할수없을것이다. 이는일체의변신론으로부터와마찬가지로일체의신화로부터나온다. 게다가이긍정은불가항력적이므로의

“누구든소득도임금도없는자는남들에게아무것도요구할권리가없다. 그의불행은그사람혼자에게떨어진다. 운명의장난으로그의운이나쁜것이다.”

정치경제학의관점에서이명제들은부정할수없다. 그리고멜서스는이것들을아주놀라운적확성을가지고정식화했으며일체의비난으로부터안전하다. 사회과학조건들의관점에서바로이명제들은근본적으로그릇되고모순적이기까지하다.

멜서스의오류, 더재대로말해서정치경제학의오류는, 먹을것이없는사람은죽어야한다고말한것에도, 개인적전유체제아래서일도소득도없는이는기아에쫓기는몸이되고싶지않으면자살로생을마감하는것밖에할것이없다고주장한것에도있지않다. 이런것이한편으로는우리의생존법칙이다. 이런것이다른한편으로는재산권의결과이다. 그리고로시 [8] 씨는이점에관해멜서스의양식良識을정당화하기위해너무나많은수고를했다. 정말이지로시씨는아주오랫동안커다란애정을가지고, 자신의동포인마키아벨리가『군주론』에서세상사람들이경탄할정도로독재를권장한것과같은식으로멜서스가정치경제학을권하고자했다고하는옹호론을펼것으로집착한다. 우리에게빈곤함을산업적, 상업적자의恣意의필요불가결조건으로바라보게하면서로시씨는우리에게“이것이여러분의권리이고여러분의정의이고여러분의정치경제학이다. 이것이바로재산권이다”라고외치는것같다.

그러나천진한골 Gaul 측은이런세세한것들은모른다. 그리고프랑스에는그의흠없는언어로말하는것이더나았을것이다. 멜서스의오류, 정치경제학의근본해악은일시적조건, 즉사회가귀족계급과프롤레타리아계급으로나누어진다는것을최종적상태로단언하는, 특히조직된, 따라서연대적인사회에서어떤사람들은소유하고노동하고소비하는반면다른사람들은소유하지도노동하지도뺨을가지지도못한다고말하는일반논제에있다. 끝으로멜서스, 혹은정치경제학은인류가누리는무제한의재생산능력에서인구와생산간균형법칙의필연성, 따라서존재를도출하는것만이필요했는데도동식물류보다더하지도덜하지도않게기아飢餓의영구적위협을보면서그결론에서길을잃는다.

간단히말해멜서스의이론은정치경제학전체를터무니없는것으로전락시킨것인데, 이것이바로이작가의위대한공로이고, 그의동료들중아무도그가세운이런공로를고려하는데신경쓰지않았다.

사회주의에관해말한다면, 그것은오래전부터플라톤과토머스모어에의해한마디로유토피아, 즉무소재無所在, 공상空想으로판단되었다.

그럼에도인간정신의명예를위해, 그리고모두에게정의가돌아가도록이를말할필요가있다. 정치경제학도입법학도그시초에서는우리가본것과다를수없었으며, 사회도그최초위치에멈추어있을수가없다.

일체의과학은우선자신의영역을확정하고자기의소재들을생산하고수집해야한다. 체계에앞서사실들이먼저이고, 기예의세기에앞서박식博識의세기가먼저다. 다른모든과학이그러하듯시간의법칙과경험의조건에종속된경제학은

그렇게하고나면, 기업가와임금노동자, 이두인간계급의재산비율을거기서도출하기가, 또한일체의상업적기복起伏를설명하기도쉬울것이다. 이는증명에따라붙는일련의보조정리들일것이다.

그런데그러한비율이존재하고평가가가능하게되려면반드시내외적법칙이임금과판매가격의구성을지배할필요가있다. 그리고현상태에서임금과가격이달라지고끓임없이오르락내리락하므로가치를변동시키고등락시키는일반적사실, 원인이무엇인지, 그리고어떤한계내에서이등락이행해지는지를묻게된다.

그러나이질문자체는여러원리들에상반된다. 왜냐하면등락을말하는자는반드시가치의무계중심이끓임없이가치를데려다주는평균방향을가정하기때문이다. 그리고아카데미가이윤과임금의등락을확정하라고요구할때바로이것은가치를확정하라고요구하는것이다. 그런데이것이바로아카데미의양반들이배척하는것이다. 그들은만약가치가가변적이라면바로이에의해확정이가능하다는것, 가변성은확정가능성의지표이고조건이라는것을이해하려들지않는다. 그들은가치는언제나변동하며결코확정될수없다고주장한다. 이는마치“진자의초당등락수, 진폭, 경험이행해지는곳의위도와고도가주어졌을때진자의길이가정해질수없다, 이진자가운동중이기때문이다”라고주장하는것과같다. 이런것이정치경제학의제 1 신조이다.

사회주의에관해말한다면, 이는그문제를더잘이해했다고도이해유념한다고보이지않는다. 그것의여러기관들중에어떤것들은그문제를간단히제쳐놓고분배를배급으로대체한다. 즉사회유기체로부터수와측정을추방한다. 다른기관들은당황해도망치면서임금에보편적투표를적용한다. 이런빈약함이수천수만의바보들을발견한다는것은말할것도없다.

정치경제학의유죄선고는멜서스의다음유명한문구에서정식화되었다.

“이미점유된세상에태어난한사람을만일그의가족이먹여살릴수단이없거나사회가그의노동을필요로하지않는다면이사람은내가말하건대음식물의어느한몫이라도달라고할조금의권리도없다. 그는실질적으로땅위에서잉여적존재이다. 자연의대향연에는그에게배정된자리가없다. 자연은그에게가버리라고명하며, 이런질서를스스로집행하는데꾸물대지않는다.”

그러므로정치경제학의필연적, 숙명적결론, 내가이런차원의연구에서지금까지알려지지않은증거를가지고서증명할결론은이런것이다. 소유하지못한자에게죽음을.

멜서스의사상을더잘파악하기위해거기서웅변적인걸질을벗겨내고철학적명제로번역해보자.

“개인적자유그리고그표현인재산권은정치경제학에서주어진다. 평등과연대는그렇지않다.”

“이체제아래서는, 각자는방해받지않으며자기앞가림을한다 (chacun chez soi, chacun pour soi). 노동은여느상품처럼등락을겪으며, 이로부터무산계급에는위험이따른다.”

문의여지없이그것은가능하다면과학적으로확정하는것이중요한비밀스러운관계들에관련된다.

다시말해무신론, 즉인간주의는그비판적이고부정적인부분모두에서는참이지만, 자연의인간그자체에주목할경우에, 인류가신의딸이고, 유출이고, 형상이고, 반영물이거나말씀이라는인류에관한이첫번째언명을외람된판단으로제쳐놓는경우에인간주의는내가말하건대이처럼자신의과거를부인하는경우에는또하나의모순에불과할것이다. 우리는그러므로인간주의에대한비판에착수할수밖에없다. 즉, 인류가그총체로서, 그발달의모든시기에서고려될때신의타원형의환상적인특성들도제외하고신적인관념을충족하는지, 인류가존재의충만성을충족하는지, 인류가스스로를만족시키는지를입증할수밖에없다. 우리는한마디로인류가고대의교리에따라신을지향하는지, 혹은현대인들이말하는것처럼신이되는것이인류자신인지를탐구하지않을수없다. 아마도우리는결국그두체계가외관상으로대립을이룸에도불구하고동시에참이며, 근본적으로동일하다는것을발견하게될것이다. 이경우에인간이성의무오류성은그집단적발현에서, 성찰된사유들에서처럼상당정도로확인될것이다. 한마디로우리가신의가설을인간에대해입증하기까지무신론적부정은확정된내용을가지지못한다.

그러므로해야할일로남는것은신관념에대한과학적, 즉경험적증명이다. 그런데이증명은결코시도된적이없다. 신학은그신화들의권위에관해교리화하고철학은범주들의도움을받아사유를전개해서, 신은초월적인, 즉이성에닿을수없는개념상태에머물렀다. 그리고가설이여전히존속한다.

내가말하지만, 이가설은어느때보다활기차고더가차없는가설로서존속한다. 우리는이숙명적시기들중하나에도달해있다. 이시기에사회는과거를경멸하고미래를고뇌하면서때로는새로운신앙을준비하는수고를몇몇고독한사상가들에게맡기고정신없이현재를끌어안고, 때로는자신이누리는것들을상실한깊은심연으로부터신에게외치고구원의신호를요구하거나아니면자신의혁명의광경에서, 희생제물의내장에서그러듯자기운명의비밀을찾는다.

재가무엇을더강변할필요가있는가? 신의가설은정당하다. 왜냐하면그것은모든사람에게불가항력적으로과해지기때문이다. 그러므로그것은누구도비난할수없을것이다. 믿는자는신이존재한다는가정에관해모를지기내게동의할수밖에없다. 부정하는자도이에관해내게동의할수밖에없는데, 그자신이나보다앞서이가정을했으며, 일체의부정은그에앞선공정을함축하기때문이다. 의심하는자에관해말한다면, 그는자신의의심이필연적으로조만간그가신이라부르게될, 내가모르는그무엇을가정한다는것을이해하도록잠깐성찰하는것으로충분하다.

그러나내가내사고의사실로부터신을가정할권리를보유한다면나는신을규정할권리를정복해야한다. 다시말해, 내가설이불가항력적으로부과된다면, 그것은그순간에는내가주장할수있는모든것이다. 왜냐하면, 긍정한다는것은확정한다는것이때문이다. 그런데모든확정은참이기위해서는경험적으로주어져야한다. 실제로확정을말하는자는관계, 조건성, 경험을말한다. 그러므로신개념

의확정이우리에게경험적증명에서나와야하니우리는이고귀한미지의탐구에서
경험에의해주어지지않아서가설을넘어서는모든것을신학의모순들에서빠지
지않도록, 그리고결과적으로무신론의항의를다시일으키지않도록삼가야한다.

III

정치경제학책에서내가모든철학의근본가설로부터어떻게출발해야했는지
를말하는일이남아있다.

그리고우선, 나는사회과학권위의기초를놓기위해신의가설을필요로한다.
천문학자가세계시스템을설명하기위해외관에전적으로의존해대중과더불어공
창의하늘과평평한땅, 풍선처럼큰태양을가정하고, 동양에서서양까지공중의곡
선을그리면서나중에관찰에따라그가출발점으로삼지않을수없는자료를수정은
하더라도감각의무오류성을가정할때, 사실상천문철학은선험적으로감각이우
리를속인다는것, 우리는우리가보지못한다는것을인정하지못했다는것이다. 그
러한원리에따를때천문학의확실성은어떻게될것인가? 그러나감각들의관계는
어떤경우에는수정되고스스로보완될수있어서감각의권위는요지부동인채로있
으며, 천문학은가능하다.

마찬가지로사회철학은선험적으로인류가그행동에서오류를범할수도, 속을
수도있다는것을결코인정하지않는다. 그것이없으면인류의권위, 즉이성의권
위, 근본적으로동의어인민주권의권위는어떻게될것인가? 그러나사회철학
은인간적판단들이실제적이고직접적인판단에서는언제나참이면서도관념들의
취득에따라언제나일반이성을개인적사유와일치시키고확실성의영역을무한히
확장하는방식으로서로보완해주며따라서로를비추어줄수있다고생각한다.
이는언제나인간판단의권위를긍정하는것이다.

그런데이성의첫번째판단, 모든정치적헌법의전문前文은승인과원칙을구
하는것으로서반드시이런것이다. 신은존재한다. 이는말하자면, 사회는지도의
견, 사전숙고, 지성을가지고다스려진다는것이다. 이판단은우연성을배제하는
것으로, 때문에사회과학에대한가능성의기초를놓는것이다. 그리고개선과진보
의목적으로시도된, 사회적사실들에대한모든역사적, 실증적연구는, 물론나중
에가서이판단을고려하기는하겠지만인민과더불어신의존재를가정해야한다.

이처럼사회들의역사는우리에게는신관념의장시간의확정에불과하다. 사람
의운명은점진적인현시과정인것이다. 그리고고대의지혜가모든것을신성의자
의적이고환상적인관념에의존하게만들어이성과의식을억압하고보이지않는주
인에대한공포로운동을멈추었던반면, 새로운철학은방법을뒤집어서사람의권위
와마찬가지로신의권위를깨고사실과증거의명예외에다른명예를수용하지않아
모든것을그문제들 가운데최후의문제로서신학적가설을향해수렴시킨다.

인간주의적무신론은그러므로사람의정신적, 지적해방의마지막항, 결과적
으로철학의마지막국면으로서모든파괴된교리의재건축은과학적입증으로가는
통로로소용된다.

자! 그렇다. 내가내놓는것은믿을수없고이상하다. 하지만그런것이있다. 형
이상학의문제에신화와은유로만대답하고언제나문제들을풀지도못하면서재생
산하는이들인신학자들처럼경제학자들은자신들이제기하는문제들에그들이어
떤식으로그문제들을제기하게되었는지를이야기하면서만대답을한다. 그들이
그이상로나갈수있다고생각했다면, 그들은더이상경제학자들이아닐것이다.

예를들어서이윤이란무엇인가? 기업가가자신의모든비용을지불한후에그
에게남는것이다. 그런데비용은노동일과와소비된가치물들, 혹은결국에는임금
으로구성된다. 그러므로노동자의임금은어떤것인가? 그에게줄수있는최소의
것, 즉알수가없다. 기업가가시장에내놓는상품의가격은어떠해야하는가? 그가
획득할수있을최대의것, 즉여전히알수가없다. 정치경제학에서는상품과노동일
과가값이매겨질수있다고가정하는것조차도, 그것들이평가될수있다는데사람
들이동의하는데도불구하고금지된다. 그리고경제학자들이하는말로는이는평
가가본질적으로자의적인작업으로서결코확실한결론에도달할수없는작업이라
는이유때문이다. 그러므로정치경제학에따르면어떤경우에도구해지지않는두
미지수의관계를어떻게발견하는가? 이처럼정치경제학은해결불가능한문제들
을제시한다. 그리고그래도우리는곧정치경제학이이문제들을제시하는것은불
가피하다는것, 그리고우리의세기가그문제들을해결한다는것을알게될것이다.
이것이바로내가말하기를도덕과학아카데미가이윤과임금의관계를공모에부처
무의식적으로말을했다고, 예언하는말을했다고한이유이다.

하지만, 노동의수요가크고노동자가드물다면, 다른한쪽에서이윤이낮아지
는동안임금은상승할수있으리라는것, 경쟁의밀물예의해생산이과잉이되면, 충
색充塞과손해를보면서판매하는일이있고, 따라서기업가에게는이윤이없고노
동자에게는일을쉬어야할위험이있으리라는것, 기계가발명되면우선은이것이
경쟁자들의불씨를꺼뜨리겠고그다음으로는독점이확립되어노동자는기업가
에게종속되고이윤과임금은서로역의방향으로가리라는것이사실이야인가? 하고
사람들은말할것이다. 이모든원인들과다른것들도연구되고평가되고보상될수
없는가?

오! 단행본들, 역사서들. 우리는이런것들을아담스미스와장바티스트세이
래로물리도록보았다. 그리고그이상은이들의문장을이리저리변경하는것밖에
없다. 그러나아카데미가그문제에다른의미를부여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그
문제가이처럼이해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이윤과임금의관계는절대적의미로
받아들여져야하며상업의우발성과이익분할의비결정적관점에서받아들여져서
는안된다. 이두가지는나중에가서자신들에대한해석을받아들여야한다. 설명을
하겠다.

생산자와소비자를단한명의개인으로보고, 그의보수는자연스럽게그의산물
과같다고한다음, 모든노동은초과분을남긴다는공리에따라이산물에서두부분,
하나는생산자에게그의선투입을상환해주는것, 다른하나는그의이윤을나타내
는것으로구분해우리는이두부분중하나가다른하나와가지는관계를정해야한다.

상을해주는것이불가능하다는것이다. 이런정의와불편부당성의체계를가지고서는사회는아주흔하게행동하지못하는무기력에빠질것이며, 로마법의부동상태로돌아갈것이다. 희생자들이필요해진다. ...따라서보상의원칙은방기되었다. 국가의여러시민계급을향한불가피한파산이었다.

이에관해사회주의자들이들이탁친다. 이들은정치경제학이대중의이익을희생시키고특권을창조할줄밖에모른다고비난한다. 그리고수탈의범률에도지법의기초가있는것을보여주면서그들은갑자기보편적수탈, 즉공동의생산과소비라는결론을내린다.

그러나여기서사회주의는비판으로부터유토피아로다시빠지며, 사회주의의무기력은그모순들에서새로이터져나온다. 공공복리를위한수탈의원칙이그모든결과를날도록발달해사회의완전한재조직화를가져온다면, 그작품에손을대기전에이새로운조직을확정할필요가있다. 그런데내가거듭말하지만사회주의는과학으로서생리학과정치경제학나부랭이밖에가지고있지못하다. 또, 보상의원칙에맞게시민들이제공한가치물에대해값아주거나적어도보장을해줄필요가있다. 한마디로변동의가능성에대해이들을안심시킬필요가있다. 그런데사회주의가그관리를요구하는공공재산바깥에서사회주의는바로이재산의보증인을취할것인가?

진실한논리로보면이굴레를벗어나기는불가능하다. 공산주의자들도유연하고평화를애호하는관념을가진어떤다른종파들보다그태도가더거침없어서, 어려움을없애고일단권력을잡기만하면모든사람들을수탈하고아무에게도보상하고보장하지않겠다고다짐한다. 근본적으로이는부당할수도배신일수도없을것이다. 재미있는데몰랭 (Camille Desmoulins) 이로베스피에르에게말한것처럼유감스럽게도불을지르는것은대답하는것이아니다. 그리고사람들은언제나그런논쟁에서는불과단두대로부터돌아온다. 어디서나그렇듯여기서도마찬가지로거룩한두권리, 시민의권리와국가의권리가현존한다. 사회주의적유토피아와정치경제학의잘랄나간이론들보다우월한화해의공식이있으며, 이를발견하는일이중요하다고말하는것으로충분하다. 이판국에소訴를제기하는당사자들은무엇을하는가? 아무것도하지않는다. 오히려사람들은그들이부당한일들에대해말할기회를얻기위해서만문제를제기한다고말할것이다. 나는무슨말을하는가? 문제들이그들에의해이해되기만하는것은아니다. 그리고공중이사회와인간운명의최고문제들에관해대화를하는가하면, 사회과학의실행자들은정교회의교회분열파로서원칙들에동의하지않는다. 이연구들의게기가된문제, 그저자들이그편협자들과마찬가지로확실히이해하지못한문제를증언하라. 이는이윤과임금의관계라는문제이다.

뭐라고! 경제학자들, 아카데미는자신도그용어들을이해하지못하는문제를공모에부쳤을것이다! 그러니그러한관념이어떻게아카데미에게다가올수있었을까?...

나는신의가설을내가말해온대로역사의의미를부여하기위해서만이아니라국가안에서과학의이름으로실행할개혁을정당화하기위해서필요로한다.

우리가신성을사회에외부적인것으로, 사회의운동들을위에서부터조절하는것으로간주하든지 (완전히허무하고환상일개연성이아주높은견해), 사회안에내재하며비인격적이고무의식적인이성과동일하면서본능처럼문명을진행시킨다고 (자아의비인격성과무지는지성의관념에현오스러움에도불구하고) 판단하든지, 끝으로사회안에서수행되는모든것이그요소들의관계로부터나오든지 (능동을피동으로바꾸고, 지성을필연으로만들며, 혹은같은말이지만법칙을원인으로삼는것이장점인체계), 언제나그결과로사회적활동의발현은우리에게필연적으로지고한존재의자의自의의신호로, 아니면일반적이고비인격적인일반이성의전형적인종류의언어로, 아니면끝으로필연의말뚝으로나타나서, 이발현들은우리에게절대적인권위를지닐것이다. 그것들의계열은정신에서처럼시간상으로연결되어, 완수된사실이수행해야할사실을정하고정당화한다. 과학과운명은일치한다. 생겨나는모든것은이성에서비롯되고, 역으로이성은생겨나는것의경험에관해서만판단을내리기때문에과학은정부에참여할권리가있으며, 자문역으로서그자격의근거를이루는것은주권자로서그것의개입을정당화해준다.

모두의투표에의해신적인것으로표현되고인정되고수용되는과학은세상의여왕이다. 이처럼신가설에힘입어일체의정태적혹은퇴보적반대, 모든신학에의해제안될수용의모든의도, 전통혹은이기심은영구히그리고불가역적으로제거되어있다.

문명을자연에결합하는연계를보여주기위해나는신권가설을필요로한다.

실제로, 이놀라운가설은자연법칙과이성법칙의동일성을함축해인간이절대자에동화되게하는것으로서우리가인간의숨씨에서창조적작업의보완물을보도록허락하며, 인간과인간이거주하는지구를연대하게하며, 섭리가우리를배치한이영지, 그래서부분적으로는우리의작품이되는영지의개발사업에서우리가만물의원리와목적의식을하게해준다. 그러므로인류는신이아니라해도신을계승한다. 혹은다른양식을선호한다면, 인류가오늘날성찰로행하는것은인류가본능적으로시작한것, 그리고자연이필연으로써완수하는것으로우리에게보이는것과같다. 이모든경우에, 그리고어떤견해를택하든, 하나의의심할수없는것으로남는데그것은행동과법의일치이다. 지적인존재들이자지성을가지고서연출되는우화의배우들로서우리는우주와영원을향해용감하게결론을내릴수있으며, 우리가우리들가운데작업을확정적으로조직했다면, 고집스럽게창조는설명된다고말할수있다.

이처럼철학의탐구영역은정해진것이다. 전통은미래에관한모든사유의출발점이다. 유토피아는영영배제된다. 자아에대한연구는개인적의식으로부터사회적의지의발현들로이송되면서그때까지박탈되었던객관성을획득한다. 그리고역사는심리학이되고, 신학은인류학이되며, 자연과학들은형이상학이되어이성

의이론이지성의공허가아니라폭넓게, 그리고직접적으로관찰가능한자연의무수한형태들로부터도출된다.

나는견해가갈지않은수많은파벌을향한내선의를증언하기위해신가설을필요한다. 나는다음이들의한恨을두려워하는것이다. 유신론자들. 이들은신의대의를위해칼을빼어들채비가되어있고, 나는로베스피에르처럼마지막무신론자의파괴에까지단두대를가동하면서도이무신론자가자신일지모른다고의심하지않는그런자를안다. 신비가들. 이들은드라므네 (de Lamennais), 키네 (Quinet), 르루 (Leroux) 등제씨諸氏의깃발아래행진하는학생들과여성들로대부분구성된당파로서‘그주인에그신하, 그신에그백성’이라는표어를가지고일꾼의임금을규율하기위해종교를부흥하는것에서시작한다. 유심론자들. 이들은내가내영혼의온힘을다해항거하는것이물질숭배교인데도내가정신의권리들을무시한다면물질숭배교를세운것이라고나를고발하는자들이다. 감각주의자들과유물론자들. 이들에게신적교리는제약의상징이고열정의예속화원리인데, 그들은말하기를그바깥에서는사람에게기쁨도, 덕성도, 천재성도없다. 절충주의자들과회의주의자들, 모든낡은철학의서적상書籍商이자출판업자들이지만 스스로는철학을하지않고자신들의허가없이생각하고믿거나단언하는누구에게든지반대하며찬동과특권을가지고광범위한신도회에가입한자들이다. 끝으로보수주의자들. 수구주의자, 이기주의자이며위선자로서이웃에대한증오에의거해신의사랑을설파하고노아의홍수 이래로세상의여러불행에대해자유를고발하고, 자신들의어리석음의감정에의거해이성을저주하는자들이다.

그러므로신앙의경외를받는허깨비들을모독하기는커녕그것들을대명천지에드러나게하기만을열망하는가설, 전통적교리들과의식의편견들을기각하는대신에단지그것들을입증할것만요구하는가설, 배타적견해들로부터자신을지키면서도이성의무오류성을공리로삼고, 이풍성한열매를맺는원칙덕분에적대적종파들어느것에대해서도물론반대하는결론을내리지않을가설을고발하는것이가능하겠는가? 종교적, 정치적보수주의자들이내가주권적지성, 모든질서정연한사고의원천인것의가설로부터출발한마당에서회질서를교란한다고비난하는일, 내가신관념의의미와내용을추구하는마당에반수그리스도교적민주주의자들이나를신의적이고따라서공화국의배신자라고욕하는일, 그리고내가철학은그대상물 안에서, 즉사회와자연의발현물 안에서연구되어야한다고적확하게주장하는마당에대학의상인들이자신들의철학적생산물의무가치함을증명한무례함을범했다고내게책임을돌리는일이가능한것인가?...

나는내문체를정당화하기위해신가설을필요한다.

신, 세계, 영혼, 운명에관한모든것에대해내가처한무지에서, 유물론자로서, 즉관찰과경험으로써진행할수밖에없고다른언어가존재하지않으므로신자의언어로결론을내릴수밖에없으며, 내공식들이본의아니게신학적이어서본래의미로받아들여져야할지아니면비유로받아들여져야할지알지못하며, 신, 인간그리고사물에대한이끌임없는사색중에서사유, 말, 행동이라는세범주가포괄하는모든

의신화를설명하는것을발견하고, 이를모든부의기원을노동에두는이론과조화시키는것이다. 바로이것이사회주의가논리적으로진행하고자했다면착수해야했던일이다. 실제로노동의실재적생산성이론과자본의허구적생산성이론은둘다본질상경제이론이다. 사회주의는경험으로부터도변증법으로부터도아무것도끌어내지못하고그모순을보여주는수고만을했다. 왜냐하면사회주의는그들중아무것도가지고있지않은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그런데재판에서일부분에대한문서의권위를수용하는원고는전체에대해이를인정해야한다. 서류들과증언들을떼어내는것은허락되지않는다. 사회주의는이자에관해정치경제학의권위를부정할권리를, 가치의분해에관해서바로이권위를발판으로하면서가졌는가? 아니다. 확실히. 사회주의가그러한경우에요구할수있었던모든것은정치경제학이이이론들을조화시키는임무를맡거나사회주의 스스로이까다로운임무를맡는다는것이였다.

이엄숙한논쟁에깊이들어갈수록전체과정은두당사자중하나를보기를원하지않는반면, 다른한당사자는진행해가기를거부하는데서나오는것에서비롯되는것으로여겨진다.

일반의편익을위해정당한사전적보상을매개로하는것이아니라면아무도자신의재산권을박탈당할수없다는것이우리의공법원칙이다.

이원칙은다분히경제적인원칙이다. 왜냐하면한편으로그것은사람들이수탈하는시민의현저한지배권을가정하며, 그에대한가입은사회적협정의민주적정신에따라필연적으로가정되기때문이다. 다른편면, 보수, 혹은수탈당하는부동산의가격은목적물의본원적가치가아니라수요와공급, 한마디로견인상업의일반법칙에따라정해진다. 사회의이름으로행해지는수탈은각자가모두를향해동의하는합의의거래에비유될수있다. 그러므로물건의가격이지불되어야하는것만이아니라합의도있어야한다. 그리고실제로보상액을산정하는것은그렇게하는것이다. 로마의법률가들이이런유비類比를취했다면그들은틀림없이공공복리를위한수탈에관해덜망설였다.

그러므로그러한것이사회적수탈권의행사보장수단 sanction, 보상액이다.

그런데, 실제로는보상의원칙이적용되어야할때마다적용되지않을뿐아니라그렇게될수도없다. 이와같이철도를개설한법률은레일이차지할부지의보상액을조문에명시했다. 그법률은운송업이먹여살리는이다수의산업들을위해서는아무것도하지않았다. 이들의손실은지주들에게값아진부지의가액을훨씬초과할것이다. 마찬가지로사탕무로설탕을만드는제조업자들을보상해주는것이문제이던당시에국가가사탕무산업이먹여살리던, 아마도빈곤의나락으로떨어져갈다수의노동자들과종업원들에게도보상을해주어야한다는생각은누구의머리에도떠오르지않았다. 그렇기는하지만, 자본의개념과생산이론에따를때때로자신의노동수단을빼앗기는토지소유자가보상을받을권리가있듯이, 마찬가지로철도때문에투자한자본이무익해지게된산업인도보상을받을권리가있다는것은확실하다. 그러므로그에게보상을해주지않는것은어떤이유인가? 오호라! 보

심시키는데는 열다섯 세기가 더 필요했다. 그러나 결국 증거와 일반의 의견은 대금업자 편이었다. 그들은 사회주의에 맞선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엄청난, 논란의 여지 없는 이익들이 이런 식의 이자의 정당성으로부터 사회에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는 모세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준 법칙 ‘외국 사람에게서는 꾸어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한다 (Non foeneraberis proximo tuo, sed alieno)’를 일반화하려고 모색했지만 경제·적 일상 관행에서 받아들인 한 관념, 즉 자본의 생산성 이론에까지 올려진 소작에의 해패배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후에 사람들로 부터 소작 그 자체를 정당화하고 자본의 소득 이론을 정립하라는 호출을 받아서 덜 행복했다. 이 점에 관해 그들은 우선 사회주의자들에 대해 혜택된 온갖 이익을 상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의문의 여지 없이, 그리고 나는 이를 인정하는 첫 번째 사람인데, 토지의 세는 돈의 세, 그리고 모든 동산 및 부동산 가치 물의 세와 마찬가지로 자생적이고 보편적인 사실로서 우리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원천을 두며, 그 정상적 발달에 의해 조직의 가장 위력적인 용수철 중 하나가 곧 되는 것이다. 나는 심지어 자본의 이자가 ‘일체의 노동은 초과분을 남기기 마련이다’라는 경구의 물화物化에 불과하다는 것도 증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 혹은 더 제대로 말해서 이 자본 생산성의 허구에 직면해 그에 못지 않게 확실한 또 하나의 논제가 부상한다. 이는 최근에 최고로 노련한 경제학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다. 일체의 가치는 노동에서 탄생하며 본질상 임금으로 구성된다는 것, 다시 말해 어떠한 부도 애초에 특권에서 나오는 것은 없으며 작업에 의해서만 나오다는 것, 결과적으로 노동만이 사람들 간에 소득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작의 이론 혹은 자본 생산성의 이론, 보편적 실무에 의해 확인되면서 정치 경제학은 일상 관행 중 주자의 자격에서 정당화하지는 못하면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론과, 우리에게 가치가 정상적으로 임금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증명하겠지만, 숙명적으로 사회 내에서 순생산과 총생산의 등식에도 달하는 또 하나의 이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사회주의자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노동이 모든 소득의 원천이라는 원리를 취해서 그들은 자본의 보유자들에게 그들의 임대료와 이윤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공통의 표현으로 임대료와 이자를 일반화해 첫 승리를 거두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은 더욱 일반적인 노동의 원리 아래 자본의 초야권들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보복했다. 재산권은 송두리째 파괴되었다. 경제학자들은 침묵밖에 할 줄 몰랐다. 그러나 새로운 비탈위에서 멈추지 못하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유토피아의 마지막 변경邊境에까지 미끄러져 갔다. 그리고 실천적 해결책이 없어서 사회는 자신의 전통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약간의 결합만 있어도 사회를 수천 년 후 퇴시킬 실험에 몰두할 수도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과학이 처방하는 것은 무엇인가?

확실히 그것은 자의적이고 파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정중앙에 멈추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 일반화하고 제 2의 원리, 사실, 우월한 법칙으로서 자본의 허구와 재산권

항들의 동의성을 겪지 않을 수 없으나 다른 측면보다 어느 한 측면에서 아무것도 단언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변증법의 엄밀성은 내가 사람들이 신이라 부르는 이미지를 가정할 것이 상도 이하도 아닌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신성으로 가득 차 있다. 만물은 유피테르(Jovis omnia plena)가 가득하다. 우리의 기념물, 우리의 전통, 우리의 법, 우리의 관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과학, 모두가 이 지워지지 않는 미신에 감염되어 있으며, 그 바깥에서는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그것 없이는 우리는 생각만 못하는 것이 아니다.

끝으로 나는 이 새로운 문들의 출간을 설명하기 위해 신가설을 필요로 한다.

우리 사회는 여러 사건들로 버거움을 자각하고 미래를 염려한다. 이 막연한 예감을 보편적, 내재적, 보기에 따라서는 영원한 그러나 비인격적인, 따라서 말없는 이성 의 도움으로만, 또는 그것이 필연이 인지된다는 것, 따라서 사회가 예감을 가진다는 것을 함축한다면 필연의 관념을 가지고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러므로 또 다시 사회를 압박하며 사회에 상상을 제공하는 매체 혹은 야차夜叉의 가설이 남게 된다.

그런데, 사회가 예언을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의 입술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술로 스스로에게 답한다. 그리고 현자는 신자신이 말했으므로 경청하고 신이 말했다는 것을 이해할 줄 안다.

도덕 및 정치 과학 아카데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다.

이윤이 임금과 가지는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 사실들을 정하고, 그것의 각각의 기복 운동을 설명한다.

몇 년 전에 같은 아카데미는 이렇게 물었다. 빈곤 misère 의 원인 은 무엇인가? 이는 실제로 19 세기가 하나의 사상, 평등과 개혁이라는 사상만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은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숨을 쉰다. 많은 이들이 그 질문을 곱씹기에 착수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점술사 집단은 자신의 질문을 더 명확한 용어로 갱신했다. 작업장에서 질서가 지배하는지, 임금이 공정한지, 자유와 특권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지, 교환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가치의 개념이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형태로 충분히 정확한지, 신용이 노동을 보호하는지, 유통이 규칙적인지, 사회의 부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지 등등을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실제로 빈곤이 소득의 부족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므로, 불행과 악의의 경우들 외에도 노동자의 소득이 어떻게 부족한지를 아는 것이 좋다. 한 세기 전에 그렇게 큰 소리를 냈고, 이상한 숙명에 의해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에서 마치 그것이 현대의 진정한 고갱이인 듯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은 언제나 재산의 불평등이라는 같은 문제다.

그러므로 평등, 그것의 원칙, 그것의 수단, 그것의 장애물, 그것의 이론, 그것이 지연되는 이유들, 사회학과 섭리적 악의 원인, 바로 이것들이야말로 불신의 냉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는 아카데미의 보는 눈이 별로 심오하지 않으며, 로마가 톨리공의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심을 지니고 있음을 잘 안다. 그러나 아카데미가 과거로 회귀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비추어 주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카데미의

영감을더욱믿어야한다. 왜냐하면진정한예언자들은자신들이공언하는것을이해하지못하는자들이기때문이다. 차라리다음의말을들어보라.

아카데미는말한다. 자발적이고사적인조합의원리를가지고공공의경감을위해할수있는가장쓸모있는적용방식은어떤것인가?

그리고또,

보험계약의이론과원리들을해설하고, 그역사를떠내고, 학설과사실들로부터계약이취할수있는발달형태들과현재우리의상업과산업이처한진보상태에서행해질수있을다양한유익한적용들을도출해낸다.

정치평론가들은상업적연대의기초형태인보험이사물들에서의연합 societas in re 이라는것, 즉순전히경제적인관계에기초를둔조건들이인간의자의恣意를벗어나는하나의사회라는데동의한다. 그래서보험, 혹은이익들에대한상호보장의철학, 이는실제적 in re 사회들의일반이론에서도출될것인데, 이는보편적조합의공식을포함할것이다. 이공식을아카데미에서는아무도믿지않는다. 그리고주체와객체를동일한관점안에합쳐서아카데미는이익들의조합이론과더불어자발적조합의이론을요구할때에, 우리에게가장완벽한사회가어떤것이어야하는지를드러내고, 이로써자신의신념에더욱상반되는모든것을공정한다. 자유, 평등, 연대, 조합을! 어떤생각할수도없는오해에의해그렇게저명하게보수적인집단이사민들에게인간의여러권리에대한이새로운프로그램을제안했는가? 이와같이가야파는예수그리스도를부인하면서구원을예언했다.

이질문들중첫번째것에관해 45 편의논문들이 2 년에걸쳐아카데미에제출되었다. 그주제가여러정신들의상태에경이롭게부응했다는증거다. 그러나수많은경쟁자들중누구도상을받을사람으로판정되지못해서아카데미는경쟁자들의부족을들어그문제를철회했지만, 실제로는논문공모의실패가아카데미가품은유일한목표라서더기다리지않고조합을주창하는당파의기대가근거를상실했다고선언하는것이중요했던것이다.

그래서아카데미의제씨는그들이삼발이위에서공고한것을회의실안에서부인한다! 그러한모순은나를놀라게할것이못된다. 그리고신은내가그들의이런행위를범죄로보지못하게말린다. 옛사람들은여러혁명이무서운징조로선포되며, 다른기적들중에서동물들이말을하는기적도있다는것을믿었다. 이는위기의순간에대중들안에서갑자기유통하는, 그리고어떠한인간적인선행자도없어보이는이갑작스러운관념과이상한이야기들을지칭하기위한비유였다. 그만큼그런관념들은통상적인사법司法의영역을벗어난다. 우리가사는시대에그러한일은얼마든지일어날수있었다. 운명적본능과기계적자생성에의거해 — 가축들이말을했다 pecudesque locutae — 조합을선포한후에, 도덕및정치과학아카데미의선생들은통상적인분별력을다시되찾아그들에게서는일상관행이영감靈感을반박하게되었다. 그러므로높은분들의견해를사람들이관심을기울인판단과분별하는법을알도록하자. 그리고현자들의이야기에서이는특히의심할바가없으며, 그들의성찰은거기에가장적절기여한다는것을확실한것으로간주하자.

동이조직화되어있다고도주장하지않을것이며, 노동은조직화된다고주장할것이다.

우리는노동이조직화된다고말한다. 즉노동은세상의출발이래로조직화되는중이며, 끝까지조직화되어갈것이다. 정치경제학은이조직의첫번째기초지식을가르쳐준다. 그러나사회주의는그것의현재형태로는조직은부족하고일시적이라고옳은주장을한다. 그리고과학의전체사명은언어진결과들과완성되어가는중인현상들을보면서즉각실현가능한혁신이어떤것인지를끊임없이탐구하는것이다.

그러므로사회주의와정치경제학은서로우스팡스러운전쟁을벌이면서노동의조직이라는동일한관념을밀바닥까지추적한다.

그러나둘다과학에대한불충성과서로간의중상中傷의죄가있는데, 한편으로정치경제학은자신의이론나부랭이를과학으로간주해일체의궁극적인보를부정하며, 사회주의는전통을부정하면서사회를발견할수없는기초위에재구성하려고 시도하니그렇다는것이다.

이처럼사회주의는정치경제학에대한심오한비판과이학문의끊임없는발달없이아무것도아니며, 여기서그학파의유명한경구를써먹자면, 먼저감각에없었던것으로지각되는것은없다 (Nihil est in intellectu, quod prius non fuerit in sensu). 사회주의자들의가설에는경제적실무에서재발견되지않는것은없다. 반대로, 정치경제학은아담스미스와장바티스트세가수집한사실들을절대로타당한것으로단언하면서부터부적절한랩소디에불과하다.

또다른질문, 앞의질문에못지않게논란이되는질문은이자 l'usure 혹은이자부대출에관한질문이다.

이자, 혹은말하자면활용의값은어떤성질의것이든소유주가자신의것을제공한데서뺏아내는보수다. 신학자들은이렇게말한다. 당도하는모든것에자가붙는다 (Quidquid sorti accrescit usura est). 신용의기초인이자는사회적자생성이자신의조직적작품에서문제시하는영역들중에 1 위로나타나며, 그에대한분석은문명의심오한법칙들을드러낸다. 고대철학자들과교회외교부들, 이들은여기서기독교시대초기몇세기사회주의의대표자들로간주할필요가있는데, 특이한비일관성에의해, 그러나그들시대의경제적관념들의빈약함에서유래한비일관성에의해소작은인정하고, 돈의이자는정죄했다. 그들에따르면, 돈은비생산적이기때문이다. 그들은결과적으로사용됨으로써소모되는물건, 그중에도포함하는물건의대여와소모되는일없이그산물로사용자에게이익을주는물건의대여를구분했다.

경제학자들은세월의개념을일반화해사회의경제에서자본의행동, 혹은그생산성은그것이임금으로소비되든수단의역할을보전하든동일하다는것, 따라서토지의소작을금하든지돈의이자를인정하든지해야한다는것, 둘다같은명목으로특권의보수, 대여의보상금이기때문에그렇다는것을스스럼없이보여주었다. 이관념을통하게하고, 로마가톨릭의이자에대한파문으로두려워하는양심을안

측량의원초적말뚝들, 유기적이고복잡한하나의전체요소들과같은것일수있다. 이런관점에서단순한것에서복합적인것으로가는인류의진보는완전히과학들의 진행에순응할것이며, 오늘날정치경제학의기초이자대상을이루는거슬리고아주흔히일탈적인사실들은우리에게구체적인가설들, 더우월한가설을염두에두고인류에의해계기적으로실현되는가설들로간주되어야할것이다. 그우월한가설의실현은모든난점들을풀것이며, 정치경제학을무효화하지않고도사회주의에만족을줄것이다. 왜냐하면, 내가서론에서말한것처럼, 자초지종을살펴볼때 우리는인류가자신을어떤식으로표현하든지잘못에빠진다는것을인정할수없기 때문이다.

이제이점을사실들에의거해더명확히해보자.

오늘날가장논란이되는문제는반론의여지없이노동의조직이다.

세세자요한이광야에서회개하라고설교한것처럼사회주의자들은도처에서세상만큼오래된이혁신을외친다. 노동을조직하라. 그러면서도그들에따를때이조직이어떠해야하는지를결코말하지않는다. 아무튼경제학자들은이사회주의자들의떠드는소리에서자신들의이론에대한침해를보았다. 이는사실상마치그들이제일처음알아야했던것인노동을몰랐다고사람들에게비난을받은것과같았다. 그러므로그들은적들의도발에우선은노동이조직화되며, 개인적타산에서든, 남들과회사를이루어서든생산을하고교환을할자유말고다른노동조직은없다고주장하는것으로대답했다. 회사를이룰경우에는따라야할진행경로가민법과상법에의해규정되었던것이다. 그다음으로는이주장이반대자들에게웃을준비를하게하는데만소용되었으므로, 그들은공세를취해사회주의자들이허수아비처럼흔든이조직에대해사회주의자들스스로가아무것도이해하지못했다는것을보여주면서마침내이는사회주의의새로운괴물, 무의미한말, 엉터리예불과하다고말했다. 경제학자들의최근글들은이러한심한판단으로가득차있다.

그렇기는하지만, 노동의조직이라는말은작업장의조직, 군대의조직, 경찰의조직, 자선단체의조직, 전쟁의조직같은말들만큼이나명확하고합리적인의미를제시한다는것이확실하다. 이런점에서경제학자들의논변은한심한부조리라는도장이찍혔다. 노동의조직이유토피아와허깨비일수없다는것도그에못지않게확실하다. 왜냐하면, 문명의최고조건인노동이존재하는순간부터따라오는것은그노동이벌써경제학자들이좋다고보는것이허락된, 그러나사회주의자들은혐오스럽다고판단하는그런식의조직에종속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사회주의에의해정식화된노동을조직화하는제안과관련해서노동이조직되어있다고하는각하사유가남을것이다. 그런데이는완전히성립불가능하다. 노동에서공급, 수요, 분업, 수량, 비율, 임금과보장중아무것도, 절대로아무것도규칙화되지않아서모든것이오히려자유지의변덕, 즉우연에넘겨지는것이유명하니말이다.

우리로말하자면, 우리가사회과학에대해떠올린관념에인도를받아서사회주의자들에게반대하고경제학자들에게반대해노동을조직할필요가있다고도, 노

그럼에도아카데미는자신의직관과아주급작스럽게결별하면서약간의후회를느낀것같다. 성찰을통해더는믿지않는조합의이론대신에아카데미는‘주로빈근계급의복지와도덕성과관련해페스타로치의훈육과교육체제에관한비판적고찰’을요구한다. 누가아는가? 아마도이윤과임금의관계, 조합, 노동조직이결국교육체제의근저에있으리란것을. 사람의생명은끊임없는도제수업이아닌가? 철학과종교는인류의교육이아닌가? 훈육을조직하는것은그러므로산업을조직하고사회이론을만드는것이다. 아카데미는제정신이돌아온순간에는언제나다음질문으로돌아온다. 말올하는것은여전히아카데미다.

물질적행복의진보와취향은인민의도덕성에어떤영향을미치나?

극히외면적인의미에서볼때아카데미의이새로운질문은진부하고기껏해야달변가를부추기기에만맞다. 그러나아카데미는끝까지자기신탁의혁명적의미를무시해야해서, 자신의주석에쳐진취향을건어올렸다. 그러니아카데미는이에피쿠로스적논제에서어떤심오한것을보았는가? 아카데미는우리에게말한다.

“사치와향락취향, 대다수가그에대해느끼는각별한애호, 그에전적으로몰두하는영혼들과지성들의경향, 이를자신들의모든사업, 모든노력과모든희생의동기와목표로삼기위한개인과국가의의견일치는이론건해물건예전에사람들을지배했던것보다아마도더강력한행동의원칙이되는일반적혹은개인적감정들을 낳는다.”

도덕주의자들에게는세기의감각주의, 양심팔아먹기, 그리고정부를수단으로자행된부패를고발하기에더없이좋은기회가주어졌다. 그대신에도덕과학아카데미는무엇을하는가? 지극히자동적인평온함을가지고아카데미는, 사치가아주오랫동안스토아학파와금욕주의자들, 이거룩함의거장들에의해금지되어온것인데, 이것이옛날종교와철학이호소한모든행위원칙들만큼이나정당하고순수하고위대한행위원칙으로등장하게될공무분야를신설한다. 아카데미는우리에게말한다. 행동의동기 (의문의여지없이지금은오래되고낡은), 섭리상으로역사에서탐욕이그뒤를이은행동의동기를확인하라. 그리고처음것의결과에따라탐욕의효과를계산하라. 한마디로아리스토폴스가자신의세기를앞서갈뿐이라는것, 그의윤리는제논과토마스아캄피스의윤리와마찬가지로승리해야한다는것을증명하라.

그러므로우리는더이상가난하기를원치않는사회, 자신이부를가지지않는한옛날에자신에게소중하고거룩했던모든것, 자유, 종교, 영광을비웃는사회, 부를획득하기위해서온갖수모를겪고온갖비웃음을사는사회를대면하고있다. 이래락에대한열렬한갈증, 사치에도달하려는막을수없는의지는문명에서의새로운시대의징후로서지고의명령이며, 그에힘입어우리는빈곤을근절하려고노력해야한다. 아카데미는이렇게말한다. 그다음에속죄와절제의계율, 희생과포기, 행복한비천함의윤리는어떻게되는가? 저세상에약속된보답에대해얼마나불신하는것이며, 복음을얼마나부정하는것인가! 하지만무엇보다도황금열쇠를시스

템으로 간주한 정부를 얼마나 많이 정당화해주는 것인가! 종교인들, 그리스도교인들, 세네카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제히 그런 부도덕한 격률을 선포했는가?

아카데미는 사상을 보완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려고 한다.

‘인신과 재산에 대한 침해의 소추와 처벌에서 형사 기구의 진보는 야만 시대 이래 가장 세련된 민족들의 시대까지 문명의 여러 시대를 어떻게 이어 오고 획을 그어 오는지를 보이라.’

도덕 과학 아카데미의 범죄 학자들이 자기 전제의 결론을 미리 내다 보았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매 순간 연구해야 할 사실, 아카데미가 형사 기구의 진보라는 말로 가리키는 사실은 혹은 교정·교정의 형태에서, 혹은 형벌에서 문명이 자유와 계몽과 부에서 성장함에 따라 발현되는 점진적인 완화일 뿐이다. 그래서 형벌 제도들의 원칙은 사회의 복지를 구성하는 모든 원칙에 반비례해서, 일체의 사법적 장치와 마찬가지로 형벌 체계의 모든 부분의 끊임 없는 제거가 있으며, 이 운동의 최종 결론은 이런 것이다. 질서의 강제 이행은 공포도 처형도 아니고 따라서 지옥도 종교도 아니다.

기성 관념을 얼마나 뒤집는 것인가! 도덕 과학 아카데미가 옹호 할 사명을 지는 모든 것을 얼마나 부정하는 것인가? 그러나 질서의 강제 이행이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겪어야 할 처벌의 두려움에 더 이상 있지 않다면, 인신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장책은 어디 있는가? 아니, 형벌 제도 없이 재산은 무엇이 되며, 재산 없이는 가족은 무엇이 되는가?

이 모든 것을 전혀 모르는 아카데미는 동요 없이 이렇게 대답한다.

‘고대부터 우리 시대까지 프랑스 땅에서 가족 조직의 여러 국면들을 그려 보라.’

이는 이런 뜻이다. ‘가족 조직의 선행하는 진보에 의한 재산 평등,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조직, 보편적 연대, 물적이고 화려한 행복, 교도소, 법정, 경찰, 유치장 없는 공공 질서의 상태에서 가족의 생존 조건을 확인하라.’

극히 대담한 혁신자들의 예를 따라 사회 질서의 모든 원칙, 종교, 가족, 재산, 형사 제도를 의문시한 후에도 덕 및 정치 과학 아카데미가 또한 다음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아마도 놀랄 것이다. 가장 나은 정부 형태는 무엇인가? 실제로 정부는 사회에 대해 일체의 선제 움직임, 일체의 보장, 일체의 개혁이나 오는 원천이다. 그러므로 현장에 명문화된 대로의 정부가 아카데미의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 해결책을 내놓는데 충분한지를 알아보는 일이 흥미로웠다.

그러나 신탁 神託들이 귀납과 분석에 의해 진행된다고 상상하는 것은 신탁을 잘 모르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문제가 요구되는 증명들의 조건이거나 보조 명제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카데미는 이를 논문 공모에 부치지 못했다. 그리고 그러한 결론은 아카데미의 눈을 뜨게 해 줄 것이며, 응모자들의 논문을 기다릴 것 없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서둘렀을 것이다. 아카데미는 앞의 문제를 다시 내놓았다. 아카데미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신의 작품들은 그 고유한 본질 상 아름답다. 한결 같이 바르다 (justificata in semetipsa, 시편 19 장 9 절). 이는 한마디로 신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참되다. 사

왜냐하면, 결국 사회주의와 정치 경제학이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한 것, 즉 인간들 가운데의 자유, 질서 그리고 행복이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워야 할 조건들, 즉 극복해야 할 난관들 역시 이 둘에 동일하며, 이 쪽에서도 저 쪽에서도 모색되거나 제안된 수단들을 가늠해 보는 일만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자신의 관념들을 실천에 옮기는 일은 지금까지는 정치 경제학에만 주어졌던 것인 반면에 사회주의는 끊임 없는 풍자에만 몰두해 왔으므로, 경제적 업적들을 그것들의 공로에 따라 평가할 때 우리가 이로써 사회주의자들의 열변을 그 정당한 가치로 환산해서 우리의 비판이외 관상으로는 특별하면서 절대적이고 확정적인 결론을 취할 수 있을 것임이 그에 못 지않게 명확하다.

이는 정치 경제학의 고찰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예로써 더 잘 이해시키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II. 이론들과 비판들의 미흡성

우선 중요한 관찰을 언급하기로 하자. 논쟁 당사자들은 하나의 공통된 권위, 각자가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권위인 과학에 준거를 두는데 동의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유토피아주의자로서 자신의 이상적 공화국을 겸손과 순화에 의해 그 가철학이라고 부른 과학의 이름으로 조직했다. 실천가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철학의 이름으로 플라톤의 유토피아를 반증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사회적 전쟁은 이처럼 진행된다. 현대 사회주의자들은 하나의 불가분의 과학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 과학의 내용, 한계, 방법에 대해 동의의 틀을 이루지는 못한다. 경제학자들 쪽에서는 사회 과학이 정치 경제학 일뿐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므로 우선 사회에 관한 과학이 어떤 것일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있는 것 *ce qui Est* 에 대한 추론된 체계적인 인식이다.

이 근본 관념을 사회에 적용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사회 과학은 사회가 그려온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체 생애에서, 즉 그 체계적 발현의 총체에서 사회가 그려한 것에 대해 추론된 체계적인 인식이다. 왜냐하면 이유 *raison* 와 체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 뿐이기 때문이다. 사회 과학은 인류가 지속하는 어떤 기간에서만이 아니라, 그 요소들 중 어떤 것들에서만이 아니라, 그 모든 원리들과 그 존재의 전체에서 인류 질서를 끌어안아야 한다. 마치 사회 진보가 시간, 공간 상 확장되어 갑자기 하나의 그림, 여러 시대의 연속과 현상들의 이어짐을 보여주면서 그 연관성과 일치성을 발견할 그림에 모이지고 고정되듯이 말이다. 그러한 것이 살아 있고 진보적인 전체 실재의 과학이어야 한다. 그러한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사회 과학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학은 그 개인주의적 성향과 배타적인 연명들에도 불구하고 사회 과학의 구성 부분이었으며, 그 안에서 그것이 묘사하는 현상들은 광대한 삼각

출발점인것과마찬가지로, 철학은이성의선험 à priori 이라자처하는것들을기초로삼아서자아하나에관념들의발생과절대지배권이있다고보고, 경험의형이상학적가치를부정하는, 즉어디서나객관적법칙대신에자의恣意와독재를두는쪽으로숙명적으로이끌렸기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사회의품에서태어나선행자도조부祖父도없이의식과사회의모든영역에서재裁定원리를배척하고유일한진리로서사실들의관계를대신들여놓으며, 과거는미래를향해도약하는출발점으로만활용하는데동의하는학설, 그러한학설은기성권위들의반발을불러일으키고도남았다. 그리고오늘날이른바여러권위들은그내부적불화에도불구하고단하나의권위를이룰뿐인데, 이는자신들을집어삼킬태세가되어있는괴물을물리치려고단결한다.

임금의부족함과노동의불확실성에대해불평하는노동자들에게정치경제학은상업의자유를들이민다. 자유와질서의조건들을추구하는시민들에게이데올로기들은대의제로응답한다. 고대신앙을빼앗겨자신의존재이유와목표를요구하는심약한영혼들에게종교는섭리의측량할수없는비밀을제안하고철학은의문을남겨준다. 언제나빠져나갈구멍들이다! 가슴과정신이실명백한관념들은전혀없다! 사회주의는굳은땅을향해똥을올리고항구로들어갈때라고외친다. 그러나반사회적인사람들은항구가없다고말한다. 인류는신의가호아래사제들, 철학자들, 웅변가들, 경제학자들의지휘에따라행진하며, 우리의연안향해는영원하다.

이처럼사회는그시초부터거대한두당파로나뉜다. 하나는전통적당파로서본질상위계적이며, 고려대상이되는것에따라왕정혹은민주주의, 철학혹은종교라고차례로불리는것인데, 한마디로재산권이라불린다. 또한당파는문명의위기때마다부활해서무엇보다도앞서무정부적 anarchical, 무신론적이라고, 즉일체의신적, 인간적권위에불복종한다고공언한다. 이는사회주의다.

그런데, 현대적비판은이런종류의갈등에서진리는상반되는것들중하나를배제하는것에있지않고, 오직그들의화해에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내가말하건대, 자연에서건관념들에서건일체의적대관계는더일반적인하나의사실, 혹은반대자들을흡수해서말하자면서로일치시키는복잡한공식으로해소된다는것이고학에서는기정사실이다. 그러므로상식을가진사람들이우리는의문의여지없이미래가실현할해결을기다리며투쟁중인힘들, 그리고그들의긍정적, 부정적특성들을분석함으로써이거대한이행에대비할수없을까? 그러한작업을정확성과양심을가지고한다면, 설사그것이일거에우리를해결책에도달하게하지는못할지라도적어도문제의조건들을우리에게드러내주고이로써우리를일체의유토피아로부터지켜주는이루헤아릴수없는장점을지닐것이다.

그러므로정치경제학에서무슨필연적인것과참된것이있는가? 정치경제학은어디로가는가? 정치경제학은무엇을할수있는가? 그것은우리에게무엇을원하는가? 이런것이바로내가이저작에서확인하려고마음먹은것이다. 사회주의는무슨가치가있는가? 동일한탐구가우리에게이를가르쳐줄것이다.

람에대한사상가들은길고도좁은섬광이쬄뚫은두꺼운안개를뚫었다. ‘그러므로우리와의관련해서진리는무엇이며, 종살이의특성은무엇인가?’

마치아카데미가우리에게이렇게말한것같다. 여러분, 여러분존재의가설, 시간, 공간, 운동, 사상, 사상의법칙들의가설을입증해보시오. 그다음은빈곤의가설, 조건불평등의가설, 보편적조합의가설, 행복의가설, 왕정과공화정의가설, 섭리의가설을입증해보시오!...

이는신과인류에대한온전한비판이다.

나는저명하신단체의프로그램을증거로삼는다. 내작업조건을제시한것은내가아니다. 이는도덕및정치과학아카데미다. 그런데, 나자신이무오류성을타고나지않았다면, 한마디로내가신이나점쟁이가아니라면내가이조건들을어떻게충족할수있는가? 그러므로아카데미는신과인간이동일하거나적어도상관관계라는것을인정한다. 하지만이상관성이어디있는지를아는것이문제이다. 그러한것이확실성문제의의미이며, 그러한것이사회철학의목표이다.

그러므로이처럼신이영감을불어넣는사회의이름으로아카데미는질문을한다.

같은사회의이름으로나는대답을시도하는예언자중하나다. 과제는엄청나며, 나는이를완수한다는약속을하지않는다. 나는신이나를데려다주는데까지갈것이다. 그러나내이야기가어떤것이든그것은결코내게서나오는것은아니다. 내펜을움직이는사고는내개개인적인것이아니며, 내가쓰는것은어느것도내것이라고할수없다. 나는사실들을내가본대로전할것이다. 나는그사실들을내가말한것에준해서판단할것이다. 나는무엇이든지그것의극히정력적인이름으로부를것이다. 그리고누구도거기서모독을발견하지못할것이다. 나는자유롭게, 그리고내가배운점술의규칙에따라이순간에현자들의웅변적인입술로, 그리고인민의알아들수없는아우성으로의견을표명하는신의소견이우리에게원하는것을구할것이다. 그리고내가우리의헌법에의해바쳐진일체의특권을부정할때, 나는결코몸니를부리는것이아니다. 나는보이지않는최고행이가우리를떠미는곳을손가락으로가리킬것이다. 그리고내행동도내말도성질을돌우는것은아닐것이다. 나는안개를일으킬것이며, 내가벼락이치게할때, 나는죄가없을것이다. 아카데미가나에게하도록초대한이엄숙한조사에서나는진리를말할권리밖에없으며, 내가생각하는것을말할권리를가진다. 내사고, 내표현그리고진리는단하나의유일한것일수밖에없다!

그리고여러분, 독자님들, 독자없이작가가없으니여러분은내저작의절반이다. 여러분없이나는울리는종에불과하다. 여러분의주의에힘입어나는기적을말할것이다. 여러분은사회라고부르는지나가는이회오리바람, 아주무서운소음과함께번쩍임과천둥과음성이솟아나는이회오리바람을보는가? 나는이회오리바람을움직이는숨겨진용수철을여러분에게손가락으로만지게하고싶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여러분이내명령에따라순수지성의상태로낮아질필요가있다. 사랑과쾌락의눈은해골안에서아름다움을, 적나라하게노출된내장들에서조화를,

검고응고된피에서생명을인식할능력이없다. 그래서사회적유기체의비밀은감정과편견이뇌를흐리게만드는사람에게는비문秘文이다. 그러한극상極上의경험은고요하고냉정한속고에서만기대된다. 그러므로여러분의눈에생명의책장들을넘기기전, 내가여러분의영혼을이회의적정화로준비시키는것, 소크라테스, 예수그리스도, 성바울로, 성레미지오, 베이컨, 데카르트, 갈릴레이, 칸트등여러민족의위대한스승들이제자들에게모든시대에요구했던이회의적정화를감수하라.

여러분이누구이든, 곤궁의누더기를걸쳤든, 호화로운사치의옷을차려입었든나는풍요의시커먼연기도, 질서의눈을가진빈곤의독도해를입히지못하는빛나는나신裸身으로여러분을데려간다. 부자에게조건차이가계산착오에서비롯된다는것을어떻게설득할까? 빈자는소유주가선의를가진다는것을결망을지고서어떻게상상하겠는가? 노동자의빈곤을파헤치는것은무위도식자에게는극히견딜수없는소일거려다. 행복한자를정당하게평가하는것이곤궁한자에게극히쓴약인것과마찬가지다.

여러분은승진했다. 나는여러분을자리에서쫓아낸다. 이제여러분은자유로운몸이다. 이제복을입은상태에서는너무많은낙관주의, 너무많은종속성, 너무많은나태함이있다. 과학은사고가떨쳐일어나기를요한다. 그런데자리를차지한한사람의사고는자기가받는보수에있는것이다.

아름답고정열적이고예술적인여러분의여주인은, 내가그렇게믿고싶은것이지만, 여러분에게만보유된다. 즉여러분의영혼, 여러분의정신, 여러분의의식은자연과예술이홀린인간들의영원한형벌을위해만든극히매력적인사치품안에들어간것이다. 나는여러분을여러분자신의이신적인반쪽으로부터분리한다. 오늘날정의를원하고한여성을사랑하는것은너무한일이다. 위대함과명확함으로써사고하려면남자는자신의본성을돌로나누고, 자신의남성적위격안에서머물필요가있다. 또한내가여러분이처하게한상태에서는여러분의연인은여러분을더이상모를것이다. 여러분은옴의아내를기억하라.

여러분의종교는무엇인가? ...여러분의신앙을잊으라. 그리고지혜를발휘해무신론자가되라. 뭐라고! 하고우리의가설과다르게, 아니, 우리의가설때문에무신론자인여러분은말한다. 오래전부터사람을넘어선인성, 이생애를넘어선생애를가정할권리를가지기위해서는자신의사고를신적인것들위로올릴필요가있었다. 게다가여러분의후생수준에대해두려워하지말라. 신은이성으로자신을무시하는자에게결코화를내지 않으며, 말로자신을찬양하는자에게관심을두지 않는다. 그리고여러분의의식상태에서여러분에게가장확실한것은신에대해아무생각도하지않는것이다. 종교도정부들과같은것을모르는가? 그중가장완벽한것은모두를부정하는것이라는점? 그러므로어떠한정치적환상도종교적환상도여러분의영혼을사로잡지않기를바란다. 오늘날이것이바보도변절자도되지않을유일한수단이다. 아! 나는열정적인청년기에이렇게말했다. 나는공화국의만종이울리는소리를듣지않으리라고. 그리고우리의신부님들은흰투니카

깁에서는하나의관념을구상하지도정식화하지도못할, 한마디로정치경제학의표절이었을뿐임을증명한다.

매일이심각한과정의악보들이쌓이고문제가복잡해지는것을보게된다.

사회가경제적일상관행을따라서진행해가고, 발을헛딛고, 고생하고부자가되는동안사회주의자들은피타고라스, 오르페우스그리고신비에싸인헤르메스이래정치경제학과상충되는자신들의교리를세우려고노력한다. 약간의조합시도들이여기저기서그들의관점에따를때행해지기도했지만현재까지이드문시도들은재산소유의대양大洋에서길을잃어결과도없는채로남아있다. 그리고마치운명이사회주의적유토피아를공격하기전에경제적가설을남김없이활용하기로결심한듯이개혁당파는자기차레가오기를기다리면서적들의조롱을씹어삼키는처지로전락한다.

원인은바로여기에있다. 사회주의는문명의병폐를공박하기를느슨함없이하고, 날이면날마다정치경제학이사람의조화적결핍을충족하지못하는무능함을확인하며, 요청에요청을계속제시한다. 정치경제학은모두가하나씩상식의버림을받으며지나가고사멸하는사회주의체계들로서류를채운다. 악의끈질김은한편의불평을조장하며이와동시에개혁주의의실책가꾸준히계속되는것은다른편의악의적인조롱거리가된다. 심판은언제내려질것인가? 법정은버려졌다. 그렇기는하지만정치경제학은법정의장점을활용하며, 보증인도내세우지않으면서세상을계속지도한다. 나는소유한다, 그러므로소유한다 (possideo quia possideo).

관념의영역으로부터세상의현실로내려오면, 적대관계는더욱심각하고더욱위협적으로우리에게나타날것이다.

요몇년간사회주의가긴태풍들의자극을받아우리들가운데환상적으로모습을드러냈을때, 모든논쟁에서그때까지무관심하고미지근한태도를보이던사람들이왕정주의적이고종교적인관념을향해두려움을지니고다시달려들었다. 그최후의결말을보인것으로사람들이고발한민주주의는저주받고억눌렸다. 보수주의자들의민주주의자들에게대한이유죄선고는재난이었다. 민주주의는본성상왕권을대체할능력이없으면서마찬가지로사회주의사상에맞지않는다. 민주주의의운명은언제나결코결말에도달하지못하면서왕권에맞서음모를꾸미는것이다. 이는곧나타났으며우리는민주주의적정치논객들의기독교및재산소유신앙에대한항거에서날마다증인이되는데, 이논객들은이순간부터인민에게버림받기시작했다.

다른한편으로, 철학은정치및종교에못지않게사회주의에생소하고적대적인것으로드러났다.

왜냐하면, 정치질서에서민주주의는수효의주권을원리로하고왕정은군주의주권을원리하는것과마찬가지로, 또한의식의문제에서종교는신이라불리는신비적인존재, 그리고이를대표하는사제에대한복종일뿐인것과마찬가지로, 끝으로경제질서에서재산권, 즉개인의노동수단에대한배타적지배권이이론들의

그러나 정치경제학이 거짓이라면, 각나라에서 법과 관습의 과학인 법학도 거짓이다. 왜냐하면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에 기초를 두므로 그것이 정치경제학에서 묘사되고 분류된 사실들의 정당성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공법과 국제법의 이론들도 대의代議정부의 모든 다양한 형태들과 함께 거짓이다. 개인적 취득과 의사의意思들의 절대적 주권의 원칙에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이 모든 결과를 수용한다. 여러 사람들이 부부의 생리학으로 간주하는 정치경제학은 사회주의가 불해도 독질과 빈곤의 조직화된 실무에 불과하다. 글로적인 이성 의 이름으로 법학자들에 의해 꾸며진 법학은 사회주의 의 눈으로 볼 때는 법적이고 공식적인 약탈의, 한마디로 재산권의 불은 제물들의 편찬에 불과하다. 이 두 과학으로 자처하는 것들 인정치 경제학과 법 사이의 관계에서 볼 때, 이들은 사회주의가 하는 말로 한다면 사악함과 불화의 완전한 이론이다. 그 다음으로 부정으로부터 긍정으로 넘어가면서 사회주의는 재산권 원리에 조합 원리를 대립시킨다. 그리고 사회경제학을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새로 만들 힘, 즉 새로운 법, 새로운 정치, 옛 형태와는 정반대되는 제도들과 도덕 관념을 새로 만들 힘이 있다고 자처한다.

이처럼 사회주의와 정치경제학 간의 구분선은 그어졌고, 그 적대성은 확연하다.

정치경제학은 이기주의의 성화聖化에 쏠린다. 사회주의는 공동체의 고양 쪽으로 기운다.

경제학자들은 정부들이 저질렀다고 고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원리에 대한 약간의 위반을 제외하고는 기정사실에 관한 낙관론자들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완수할 행동에 대한 낙관론자들이다.

전자의 사람들은 마땅히 그해야 하는 것이 지금 그러하다고 단언한다. 후자의 사람들은 마땅히 그해야 하는 것이 지금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전자의 사람들은 이성에서 나올 뿐인 자신들에 대한 비판이 자신들의 편견에 빈번한 공격을 가함에도 종교, 권위 그 밖의 재산권의 동시대적이고 보수적인 원칙들의 수호자로서나서는 반면, 후자의 사람들은 비록 완전히 부자유한 일정한 종교성과 사실들에 대한 별로 과학적이지 못 한 열시가 언제나 그들 학설의 가장 명백한 특성이기는 하지만 권위와 신앙을 거부하고 오직 과학에 호소한다.

게다가 이 두 부류는 하는 짓이 서로 고거두는 열매가 없다고 서로를 끊임없이 비난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반대자들에게 조건 불평등, 독점과 경쟁이 기괴하게 연합해 영구적으로 사치와 빈곤을 낳는 이상업적 방탕함을 고려하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경제이론들이 언제나 과거에 맞게 형성되어 미래를 희망없이 내버려둔다고 비난한다. 한마디로 그들은 재산권 체제를 인류가 4 천년 전부터 항거하고 맞서 싸워오는 무서운 환각이라고 말한다.

경제학자들 쪽에서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재산권, 경쟁, 경찰이 없어도 될 체제를 만들어 보라고 도전장을 낸다. 그들은 손에 악보를 들고서, 모든 개혁 사업들은 사회주의가 폄하하는 바로 이 체제에서 빌려온 악보들의 랩소디, 사회주의가 그것바

를 걸치고 도리아식으로 교송交誦을 읊는 소리를 듣지 않으리라고. 오, 하느님, 사막의 바람이 신선한 산들 바람이 되듯 우리의 종살이를 변화시키소서! ... 그러나 나는 공화주의자들에게 절망했고, 나는 더 이상 종교도 신부들도 모른다.

나는 아직도 여러분의 판단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동정심에 무감각하고, 덕을 넘어서고 행복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나 이는 초심자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일일 것이다. 여러분은 단지 동정, 행복과 덕은 조국, 종교, 사랑과 마찬가지로 가면 일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결코 잊지 말라...

제 1 장 경제학에 관해

1. 여러 사회의 경제에서 사실과 법의 대립

나는 경제학이 실재함을 긍정한다.

이 명제는 오늘날 감히 의심하는 경제학자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서 한 철학자가 여태껏 주장해 온 것 중 가장 대담한 명제이다. 그리고 연속되는 이 연구들은 내가 바라건대 인간 정신의 가장 위대한 노력이언젠가는 이를 보여주려는 노력일 것임을 입증할 것이다.

나는 또한 편으로 경제학, 모든 과학들 중 내 소견으로는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순수하고 사실로 가장 잘 번역되는 경제학의 진보적 특성과 동시에 절대적 확실성을 긍정한다. 이 과학을 구체적으로 논리학이나 형이상학으로 만들고 옛 철학의 기초를 근원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명제다. 다시 말해, 내게 경제학은 형이상학의 객관적 형태이고 실현이다. 이는 움직이는 형이상학, 지속성을 피해 달아나는 도면 위에 그려진 형이상학이다. 그리고 노동과 교환의 법칙에 몰두하는 자는 누구냐 정말로, 그리고 특별히 형이상학자이다.

내가 서론에서 말한 것 과 더불어 이는 놀라울 것이 전혀 없다. 사람의 노동은 신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며, 신은 모든 존재를 창조하면서 바깥에 이성의 영원한 법칙들을 실현할 뿐이다. 그러므로 경제학은 반드시, 그리고 동시에 관념들의 이론이면서 자연적 신학이고 심리학이다. 이것인 상만으로도 경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는 내가 사전에 신의 존재를 어째서 가정해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명목에서 단순한 경제학자인 내가 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망하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나는 서둘러 그것을 말하면서 여러 이론들의 앞뒤가 맞지 않는 총체, 사람들이 거의 100 년 전부터 정치경제학이라는 공식 명칭을 붙여 준 그것을 과학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는 그 명칭의 어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재산권의 법전이거나 태고 때의 일상 관행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이론들은 우리에게 경제학의 초급 개념들이나 제 1 부분만을 제시할 뿐이다. 이는 그 이론들이 재산권처럼 서로 간에 온통 모순되고 그 중 태반이 적용 불가능하게 되는 이유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스미스, 리카도, 맬서스, 세가 우리에게 전해 주고, 반세기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정치경제학의 부정인 이런 단언의 증거는 특히 본 논문에서 나올 것이다.

정치경제학의 부족함은 언제나 사색적인 정신들을 당황하게 했으며, 이들은 실천을 깊이 파고 들기에는 지나치게 자신들의 공상을 사랑하고 실천을 그 명백한 결과

로 평가하는데 국한해 초부터 현상 유지에 대한 반대 당파를 이루었으며, 문명과 그 관습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풍자에 매달렸다. 반면에 모든 사회 제도의 기초인 재산권은 열렬한 옹호자들이 결코 모자라지 않았다. 이들은 실사자 praticien 라는 칭호에 의기양양해서 정치경제학의 웨방꾼들에게 계속 전쟁을 걸었으며, 용감하고 흔히 능숙한 손으로 일반적 편견과 개인적 자유가 합심해서 세운 구조물을 공고화하는 작업을 했다. 아직 진행 중인 보수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 간의 논쟁은 철학사에서 실재론자들과 명목론자들의 싸움과 비슷하다. 이 편이나 저 편에서 오류와 옳음은 동등하고, 경쟁심, 편협성과 견해들의 불관용이 오히려 유일한 원인이었다고 덧붙이는 것은 거의 쓸데가 없다.

이처럼 두 세력이 세상의 통치를 놓고 논쟁하며, 적대적인 두 송배 대상, 즉 정치경제학이나 전통, 그리고 사회주의나 유토피아에 열이 올라 서로를 파문에서 처한다.

그러므로 더 가시적인 말로 하여, 정치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정치경제학은 오늘날까지 부의 생산과 분배의 현상들에 관해, 즉 노동과 교환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자생적이고 따라서 가장 공신력 있는 형태들에 관해 행해진 관찰들의 모음이다.

경제학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한에서 관찰 사항들을 분류했다. 그들은 현상들을 묘사했고, 그것들의 돌발과 그 관계를 확인했다. 그들은 거기서 여러 상황들의 필연적 특성을 주목했고, 이것들을 법칙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말하자면 사회의 가장 순진한 발현들에서 취한 이 지식들의 총체가 정치경제학을 이룬다.

그러므로 정치경제학은 부의 생산 및 분배와 관련하여 인류의 가장 명백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신임받는 관습, 전통, 실무와 일상 관행의 자연사 自然史이다. 이런 자격을 가진 정치경제학은 사실적으로, 법적으로 스스로를 합당한 것으로 여긴다. 사실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연구하는 현상들이 항시적, 자생적, 보편적이기 때문이며, 법적이라는 것은 이 현상들이 나름대로 가능한 가장 큰 권위인 인류의 권위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경제학은 과학, 곧 규칙적이고 필연적인 사실들의 추론되고 체계적인 지식의 자격을 지닌다.

비슈누 신과 비슷하게 언제나 죽고 언제나 부활하는 사회주의는 20 여년 전부터 대여섯 명 계시자들의 인간으로만 번째 환생을 했다. 사회주의는 사회 현체제의, 그래서 예전 모든 기구들의 비정상성을 주장한다. 문명화된 질서는 천박하고 모순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 그 자체로부터 억압, 빈곤, 범죄를 낳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한다. 사회 생활의 모든 과거를 모함한다고는 못해도 고발하고, 온힘을 다해 도덕 관념과 제도들의 재형성을 추진한다.

사회주의는 정치경제학을 잘못 된 가설이라고 선언하면서 극소수에 의한 대다수의 착취를 위해 발명된 궤변을 끝맺음하며, 열매로써 안다 (a fructibus cognoscetis) 는 경구를 활용해서 인간적 재난의 그림으로 정치경제학의 무능함과 공허를 입증해 보여 준다. 이 재난에 정치경제학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